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1 2018

VOL. 26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4 Rear Camera Phone*

SAMSUNG Galaxy A7 | A9

Capture life differently



2X Telephoto
(10 MP)



Ultrawide Angle
(8 MP)



Low Light
(24 MP)



Bokeh
(5 MP)



www.GalaxyASeries.com

*4 rear cameras only available on Galaxy A9.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f](#) Samsung Indonesia | [t](#) SamsungID | [@](#) Samsung_ID | [v](#) Samsung Indonesia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화 : (021) 521-2515, 527-2054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저의 11월은 매번 마지막 달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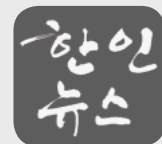
다음 달은 바벨 거야~

정리하고 맞이하기 위한 마음만 붙주합니다.

하나로 끝나는 시스템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지속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기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체의 패턴 속에 묻혀있던 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11월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8 논설위원 칼럼 - 강자의 역사왜곡 <김문환>
- 12 편집위원 칼럼 - 최근 투자유치 우대 정책의 전환 <황윤홍>
- 14 신성철 칼럼 - 히잡은 신앙일까 패션일까
- 16 이해창 경제칼럼 - 스맛앗! 인도네시아
- 24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 28 월간뉴스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36 ANEKA MASAKAN KOREA - 소고기 해장국 <양소연>
- 40 자카르타 맛집탐방 -Emilie French Restaurant <주윤지>
- 42 행복에세이 - 행복을 점검하자 <서미숙>
- 45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48 하루 <안세인>
- 56 JIKS 소식
- 60 건강칼럼 - 발목 펌프 건강법 <재인니대한체육회>
- 62 인도네시아 법률해설(267) <이승민>
- 65 JIS 소식 <한영진>
- 67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 2018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회 11
- APG 폐막 18
- 국경일 기념행사 개최 20
- 사진으로 본 2018 APG 이모저모 21
- 재인니선수단 출정식 22
-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32
- 코린도, 성금지원 39
-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52
- APG 축하공연 55
- 한국무형문화재 주간 행사 58
- 민화전시회 59



이정호 작가 프로필.

*영국여왕 엘리자베스2세 즉위60주년 기념초대전.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기념 축하 홍보문화대사 여성대표작가 초대전(런던 렌드마크)

*중국북경798(706갤러리) 한국의멋과 5000년역사의 바느질이야기-섬유와색실의 미학

작품명: 신들의 그림자, 와양과 복을 말하다 (Wayang dan Rejeki)
76×65cm
재료.mixed media 년도.2018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doodle]



《논설위원 칼럼》

강자의 역사왜곡



김문환/논설위원

월요일 아침시간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지상파 방송 Metro TV의 ‘채널 저팬(Channel Japan)’이라는 영어 방송에 맞닥뜨리며 일본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그리고 매주 평일 오전 10시에는 ‘Metro Xin Wen’이라는 타이틀로 중국어 방송이 20분씩 방영된다. 그러나 한국을 소개하거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고정 프로그램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1970~80년대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리 강하지 못하던 시절, 인도네시아 국내 언론지면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기사가 왜곡되는 사례를 자주 보아왔다. 예를 들어 국제 스포츠경기에서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인데도 이를 살짝 덧칠해 ‘남한’을 ‘북한’으로 바꾸던가, 또는 대한민국 기업의 성과물을 일본의 그것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던 군부독재 시절, 언론사를 계도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공보부(Departemen Penerangan)라 칭하였는데 이 부서의 장은 알리 무르토포(Ali Moertopo) 장군을 비롯하여 역대 정권의 실세가 담당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때로는 여론조작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BTS , UN 총회 연설 (2018. 9.25)



우리 한국기업이나 한국정부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이러한 관행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위세를 부렸던 공보부는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던 2001년에 정보통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로 개칭되었다.

지난 10월 13자 모 카톡방에선 일본측에서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한반도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수작업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아시안 패러게임 한국인 통역자원봉사자가 제보한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본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어떤 대응조치가 나왔는지는 아직 들은 바 없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그게 사실이라면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국력을 앞세운 대국의 위세에 위축되어 그 여파가 정치외적인 분야로 확대되어 국가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만든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 유럽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활약상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며,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의 실적이 꺾일 줄 모르며 국력의 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어 한가닥 용기를 불러일으켜 준다. 아울러 지난 8월과 9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는 샤이니, 장애인대회에서는 강남스타일이 시연되었으며, 걸그룹 AOA는 무대에 올라 무려 4곡을 소화해 내는 특별대우를 받으며 한류의 힘을 과시하였다. 유럽투어 기간이라 끝일 줄 모르는 방탄소년단의 뒷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특출한 역할을 해냈던 방시혁 프로듀서의 이력이 숨어있어 더욱 화제다. 고교 재학 중 전국1등을 다투던 실력으로 학교나 집안에서 법대를 강권하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손에 든 기타에 심취되어 어머니 친구가 자택을 방문할 때 그 솜씨를 발휘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집안의 강요를 뿌리치고 비법대를 택한 그의 선택은 작곡, 작사, 프로듀서로서의 다재다능한 진가를 발휘하여 오늘날과 같은 큰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다. 방시혁 사례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법대, 의대가 아니라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대성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정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제목으로 올린 ‘강자의 역사왜곡’의 대응책은 방시혁이나 삼성전자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한인회장 선출 입후보 등록 공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1월 29일 개최예정인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임기”의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당 위원회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 2018년 11월 14일(수), 14일간
2. 등록접수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사무국내, 연락처: 021-521-2515)
3. 후보자격
 - ① 본회의 임원으로서는 지난 3년간 회비 및 찬조금을 매년 납부한 자
 - ② 만45세 이상인 자로 인도네시아 체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한인사회에서 덕망 있고 도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 징역 6개월 이상의 확정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될 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과점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4. 등록요건
 - ①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 1부
 - ② 후보자의 유효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③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 ④ 후보등록금 US\$50,000(미화오만불) 은행확인 입금 Slip 사본
※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는 후보등록금의 반액인 US\$25,000 반환
5. 후보등록금 입금처

은행명	Woori Saudar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200-913-783-696	220-500-7893
계좌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6. 투표일자 및 장소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4시, 2018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시이사회 총회장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임시이사회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함
7. 투표 및 개표진행
 - ① 투표권자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관 제24조(이사회) 3항에 근거한 임원
 - ② 투표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 ③ 입후보자 합동연설 : 투표직전 총회장에서 각 후보당 15~20분 진행
 - ④ 당선자발표 : 개표직후
8. 선거관련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의장 연락처: 0816-825-931)

2018년 10월 24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박재한

2018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회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18년 10월 22일 오후 4시 한인회회의실에서 양영연회장, 김주철수석부회장, 박재한수석부회장, 김우진부회장, 김준규부회장, 손한평부회장, 이강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2018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로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지원 민관합동위원회활동보고와 세계한인회장대회참가, 톰복지진피해 및 술라웨시 빨루 재난 구호 성금모금 관련보고, 제6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인회는 9월 10일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8일 선거관리위원 모집결과 및 회장단회 소집을 공지하였다.

지난 9월 10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11월 29일 실시예정인 제 6대 한인회장선거를 위해 9월 13일 부터 19일까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으며 5명의 구성원으로는 박재한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손한평, 김종현, 이승민, 이강현위원으로 결정됐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가운데 제 6대 한인회장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의 활약을 기대한다.



최근 투자 유치 우대 정책의 전환

글: 편집위원 황윤홍

인니정부의 외국 투자 유치 전략이 대규모, 대기업, 선도 기업(Industri Pionir) 그리고 투자 지역과 특정 사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 제도와 정책 발표가 눈에 띄는 반면 외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에는 각종 규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투자 증대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과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요약한다.

대규모 투자 유치 정책은 2011년 재무장관 규정 [첨단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치 /No.130/pmk.011/2011] 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4일 장관 규정 (No. 35/pmk.010/2018) 에 투자금 인하, 대상 업종 추가 등 우대 조치를 확대 하였다.

반면 2018년 1월2일 발효된 투자조정청장 규정 [투자 허가 간소화 가이드 라인] 에는 외자 기업의 년 매출 규모, 자본금 등에 엄격한 조건을 부여 하여, 외국 중소기업 진출에 장벽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투자와 대기업 진출에 대하여는 각종 우대 정책을 발표해 인니 정부의 향후 우선 투자 유치 순위의 정책 변화를 선명히 보여 주고 있다.

1. 선도기업 (Industri Pionir) 우대책으로 이전 규정 (no. 159/PMK.010/2015)에 아래 조항을 추가

Industri Pionir adalah industri yang memiliki keterkaitan yang luas, memberi nilai tambah dan eksternalitas yang tinggi, memperkenalkan teknologi baru dan memiliki nilai strategis bagi perekonomian nasional.

- 1) 투자금액을 최소 1조루피아에서 5천억루피아로 인하
- 2) 추가 대상 업종 : 석유 가스 상부사업 (채굴, 정제), 석유화학, 수송기기부품(엔진등), 의약품 원재료, 반도체 (컴퓨터 부품), 의료기기 부품, 항공기 부품, 철도부품, 발전기 부품
(중전:기초금속, 유기기초화학, 통신기기부품, 공업기계부품, 엔진부품, 로봇부품, 선박부품, 인프라사업)
- 3) 법인세 감액 기준 10-100% 에서 일률 100%로 변경
- 4) 법인세 면제 기간을 종래 5-20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루피아) 5천억~ 1조 5년, 1조-5조 7년, 5조-15조10년, 15-30조 15년, 30조루피아 이상 20년 설정. 조건에 따라 추가2년간 50% 면제도 가능.
- 5) 종래 신규투자에만 허용, 변경 후 기존업체의 확장 투자에도 적용
- 6) 중고기계 수입 가능
- 7) 과소자본세제 (자본:부채 = 1:4 이내) 도입

2. 특정 산업과 투자 지역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도입

산업	투자액 (루피아)	고용자수	지역	조건
유아식품	1,000억이상	100인이상		중소기업파트너 현지조달부품20%이상
의류(피혁사용)	600억이상	500인이상	자바	현지조달부품20%이상
	250억이상	200인이상	자바이외지역	현지조달부품20%이상
스포츠신발	700억이상	400인이상	자바	현지조달부품20%이상
	300억이상	150인이상	자바이외지역	현지조달부품20%이상
카톤박스	7,500억이상	100인이상	자바지역(일부제외)	현지조달부품20%이상

3. 기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토지 취득에 대한 우대책 5,000명 이상 고용 수출기업 (수출 50% 이상)에 대한 개인소득세 50% 감면 조치와 세 로지스틱 센터 우대책으로 10,000m2 이상 토지 소유 창고업에도 적용

4. 외국 중소기업 투자 제한 조치

외국 중소 규모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조치 발표. 중소 규모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로 2013년 발표된 [최저 투자액 규제] 에 아래 조건을 추가 이를 충족하여야함

- (1) 토지, 건물을 제외한 총 투자액이 100억루피아 이상
- (2) 불입 자본금 25억루피아 이상

동 규제 조항은 ‘영업 개시 또는 상업 생산 개시 전까지 충족하여야만한다’ 로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 조건 달성 여부의 확인 없이 영업허가 (IUT) 는 발행 되었고 그후에도 모니터링이 없어 실질적인 영업을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100억루피아가 투자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최저 투자액 조건이 충족 되지 않으면 영업 개시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 발표 된 투자조정청장 규정 [투자허가 수속 간소화 가이드/no.13 /2018] 에 모든 외국기업은 [인니 기업 분류 기준] 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 되어 ‘년매상 500억루피아’ 또는 ‘자산 100억루피아’ 라는 대기업 유지 조건을 달성토록 하였다.

기존 제조업체의 증산을 위한 (통상30%)사업 확장과 기존 서비스업체가 신규 사업을 추가 (타 업종코드 -KBLI)한 경우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 회사가 내국법인 (PMDN) 을 매수할 경우에도 신규정이 적용한다.

신설 투자 법인은 통상 2-3년간 창업 적자로 순자산 100억루피아 유지는사실상 어려워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가 급격히 떨어질것 예상 된다 .

5. 상기 규제와 별도로 국내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한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

1) 건설업

2014년 공공사업장관규정 (no. 5 /2014) 에 따라 [종합건설 서비스 사업] 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순 자산총액을 500억루피아 이상으로 규정.

아울러 외국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테크, 하이코스트 사업 시행이 가능한것으로 간주해 건설 수주액 500억루피아 이상, 감독 서비스는 100억루피아 이상 사업만 가능토록 조치.

2. 포워딩업

2017년 교통장관규정 (no. PM49/2017) 에 따라 외국기업이 포워딩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최저 수권자본금은 미화 400만달러로 그중 25% (100억루피아)는 불입 자본으로 하여야 하는데 내국기업의 최저 자본금은 12억루피아이다.

인니 투자조정청 (BKPM) 이 발표한 외국투자유치 실적이 금년 상반기 -1.1% 그리고 2/4분기는 -13% 로 대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정부의 각종 투자 우대 정책의 변화가 향후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 된다.

■ 히잡은 신앙일까 패션일까?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자카르타 도로에서 정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는 여경, 이민국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여성 공무원, 맥도널드 계산대에 서 있는 판매원,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익명의 여성들... 모두 히잡을 썼다. 공무원이 쓰는 히잡은 정복에 어울리는 짙은 갈색이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직원들은 검은색이 일반적이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들은 옷보다 더 화려한 색상의 히잡을 쓰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카락과 귀와 목을 덮는 스카프를 아랍어로 히잡(hijab), 인도네시아로 질밥(jilbab), 영어로 베일(veil)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인도네시아 여성이 히잡을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여성지도자인 렛노 마르수디 외무장관과 수시 뿌지 아스뚜띠 해양수산장관은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영부인 이리어나 여사는 장소에 따라 히잡을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한다. 유습 깔라 부통령의 부인인 무피다 깔라 여사는 늘 히잡을 착용한다.

“왜 히잡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자카르타에 근무하는 한 직장여성은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얼굴 선을 바꿀 수 있어 예쁘게 보인다” 고 답했다. 히잡이 종교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도구라는 통념에 위배되는 답으로,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히잡의 색상이 검은색이나 흰색처럼 무채색에 무늬도 없었지만 지금은 색과 무늬만이 아니라 소재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히잡에 어울리도록 디자인된 옷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문화인류학자 김형준 교수는 저서 ‘히잡은 패션이다’ 에서, “히잡이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되면서 차별화, 고급화,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며, “히잡은 여성의 미적 표현과 이슬람이 조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논평했다.

한 언론사 근무하는 모 여기자는 히잡을 쓰는 이유에 대해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탈 경우 히잡을 쓰면 짐적거리는 남자들이 줄어서 편하다” 라고 말했다. 수하르또 정권인 신질서시대(Orde Baru)가 붕괴된 1998년부터 수년 간 이어지는 혼란기에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사회불안과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히잡을 착용했다.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이슬람세력이 약해진 국가권력의 빈틈을 채우면서 사람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됐다.

내가 198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해도 히잡을 쓴 여성은 흔하지 않았다. 한국계 제조공장에서는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히잡을 쓰는 직원의 채용을 꺼렸고, 드물게 히잡을 쓰고 온 여직원에게 히잡 착용을 통제하면, 이 여직원이

속한 이슬람사원의 지도자가 회사를 방문해 항의하는 정도였다. 사회학자 누르 아이샤 꼬따루말로스(Noor Aisha Kottarumallos)는 자신이 학생이던 1993년에는 히잡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필수요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히잡을 쓴 여성을 시골사람,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 등으로 보았다며, 이슬람 의상은 중동 스타일을 모방한 것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신질서 시대에는 중앙집권 강화와 종교집단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슬람을 의도적으로 억눌렀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꾀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슬람 세력을 회유하고자 1990년에 인도네시아지식인무슬림연합(ICMI)을 결성해 이슬람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고,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히잡 착용이 허용된 것이다. 또 현대화와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자발적으로 히잡을 쓰는 여성들도 생겨났다. 1998년 이후 개혁시대에는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히잡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2008년 자카르타 패션위크 개막식에 무슬림의 상 패션쇼가 열렸다. 무슬림의상이 패션산업에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 확산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에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지역이 늘고 연예인들이 히잡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라마단과 르바란 때는 히잡을 썼다가 상황이 바뀌면 히잡을 벗는 등 융통성을 보였다. 또 품이 넉넉하게 디자인된 무슬림 옷 대신 일상복에 히잡을 쓰는 여성들도 늘었다. 히잡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면서 무슬림패션이 패션산업의 일부로 성장했다.

2010년대에는 히잡을 쓴 여성을 공식 행사장이나 무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같은 외식업체 종업원만이 아니라 국가대

표 운동선수들도 히잡을 쓰고 경기를 했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이면 스스로 히잡을 쓰고 남성이면 부인에게 히잡을 쓰게 했다.

히잡 착용은 시대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다. 사회학자 누르 아이샤 꼬따루말로스(Noor Aisha Kottarumallos)에 따르면, 수하르토 집권기에는 히잡을 쓴 여성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히잡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다. 그는 졸업사진을 찍을 때 히잡을 쓴 학생은 졸업앨범에 실지 않겠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억지로 히잡을 벗어야 했지만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즘은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신앙이 없거나 종교적 위선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제 여성들이 히잡을 쓰도록 강요당하는 상황까지 왔다.

2010년 전후로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패션을 포함해 이슬람 문화의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점도 히잡 착용의 한 요인이다. 또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부상함에 따라 이슬람 복장을 선택하는 무슬림들이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2억6천만명의 인구가 있고, 이 중 8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슬람 패션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형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히잡 착용의 패러다임도 변했다. 신질서시대 붕괴 후 히잡 착용이 늘면서 오히려 히잡이 가지는 종교적 중요성은 희석됐다. 이제 히잡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에게 선택이고 언제든 다시 벗을 수 있는 패션아이템 중 하나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히잡, 여성, 패션 등에 대한 인식은 긴 시간을 두고 바뀔 것이다.



[다시서는 봄] 스망앗! 인도네시아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인도네시아 경제가 심상치 않다. 필자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인으로부터의 걱정어린 문기도 부쩍 빈번해지는 요즘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터키 외환위기 여파 등으로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달러당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등을 통한 환율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만에 최저수준인 15,200루피아 이하로 무너졌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 꾸준히 개입해왔고 지난 5월 이후로만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외환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7%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말 6.32%였던 인도네시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달 8% 대를 훌쩍 넘어섰다.

루피아 가치의 급락 배경에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 적자가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쌍둥이 적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계속되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5%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생산되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강세와 인프라투자를 위한 재화 수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재정적자의 요인 중 하나는 유류보조금으로 이는 인니정부가 인프라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2014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제재 및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등으로 유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유류보조금에 의한 인니 정부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처럼, 인프라투자 등의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정부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5%대에서 회복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향후 하락 우려가 통화가치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외환경에 취약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도 금번 환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내 외국인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이는 아시아 신흥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인니 금융시장은 체질적으로 외국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등의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 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채권 시장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환율하락을 부채질 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G2의 무역전쟁 또한 인니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석탄, 광유 등 인도네시아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니 원재료 구매의 가장 큰손이다. 그러나 최근 G2의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공급 사슬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수소비 경제기여도가 57%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높은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초래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기 악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보태지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7년 한국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금액은 20.3억불로 우리나라는 대인니 5위 투자국이다. 최근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계/전자, 섬유/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한국 제조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환율 상승 및 금융 불안 차단을 위한 인니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 시행으로 인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9월말의 술라웨시 지진 및 쓰나미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다급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론 국가 전체에 뼈아픈 참사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12월, 23만명 이상이 사망한 수마트라 대지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것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팔루는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특별경제 구역으로 가깝게는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연결하고 멀게는 호주까지 닿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국 대륙과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상 항로 중간에 있으면서 항만을 갖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가장 주목 받는 특별경제구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어느덧 인도네시아 생활 3년째인 필자에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삶의 터전이 철저히 짓이겨진 팔루 및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처참한 모습들은 더이상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해외 뉴스거리로만 지날 수가 없다. 참사 지역의 비극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재앙인 듯 내 민족, 내 동포의 아픔인 듯 느껴졌다.

수백명의 사망자를 냈던 2002년의 발리 폭탄테러와 수십만명이 희생된 2004년 대지진과 쓰나미를 잘 극복하고, 이후 꾸준히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어나온 인도네시아, 최근 금융불안과 천재지변으로 다시한번 큰 도전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래전 우연히 접하고 필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어느 무명시인의 시구절을 다시금 꺼내 떠올려 본다.

“체념에 말라 붙은 / 외로움이나 눈물쯤 / 흠먼지 일듯 꽃샘바람이 씻어가고 / 이제 살아서 돌아나는 / 아픈 목숨의 푸성귀입니다.”

(詩, 다시 서는 봄 中)

장애인 아시안게임 단일팀 감동 주고 폐막 코리아하우스 ‘한국인의 밤’ 행사 열어

단일팀, 탁구 은·수영 동메달
한국은 금 53개로 종합 2위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장애인 스포츠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메달 획득, 남북 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 등 여러 의미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13일 밤 9시(한국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글로라 봉카르노(GBK) 마디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남북은 개막식 때처럼 흰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로 이뤄진 단복을 입고 공동입장했다. 개막식에서 기수로 나섰던 남쪽 휠체어펜싱 김선미(29·온에이블)와 북쪽 수영 심승혁(22)이 또 다시 기수를 맡았다. 경기를 마친 일부 선수들이 귀국해 폐막식에는 남쪽 70여명, 북쪽 20여명 등 100명 가량이 참가했다.

단일팀은 수영 남자 계영 400m(스포츠등급 34P)에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 탁구 남자 단체전(스포츠등급 TT6-7)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북 장애인 단일팀 사상 첫 메달이다.

애초 금 33개, 은 43개, 동메달 49개로 종합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한국은 금 53개, 은 45개, 동메달 46개 등 총 144개의 메달을 수확

했다. 이로써 금 172, 은 88, 동메달 59개를 획득한 중국에 이어 2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에 오른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2회 연속이며, 2002년 부산 대회를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다.

Pos	Contingent	Gold	Silver	Bronze	Total
1	People's Republic of China	172	88	59	319
2	Republic of Korea	53	45	46	144
3	Islamic Republic of Iran	50	42	43	135
4	Japan	45	69	83	197
5	Indonesia	37	47	51	135
6	Uzbekistan	35	24	18	77
7	Thailand	23	32	50	105
8	Malaysia	17	26	25	68
9	India	15	24	33	72
10	Hongkong, China	11	16	21	48
11	Philippines	10	8	11	29



‘겨레의 밤’ 행사



국외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볼링이 금 12, 은 7, 동메달 3개를 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고, 탁구도 금 9, 은 10, 동메달 6개를 수확해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큰 힘을 보탤다. 유도(금 7·은 3·동 4), 사이클(금 7·은 2·동 1), 론볼(금 7·은 1·동 1)도 나란히 금메달 7개씩을 따냈다.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은 탁구와 수영, 육상 등 3개 종목에 선수 7명을 포함한 23명의 선수단을 보냈다. 단일팀을 꾸린 종목을 제외하고는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이란이 금 50, 은 42, 동메달 43개를 따 종합 3위에 올랐고, 일본이 4위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5위

를 차지했다. 한편 제13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4년 뒤인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또한 12일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문을 여는 코리아하우스(자카르타 술탄 호텔 소재)도 남북이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남북 체육 교류의 허브로서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이뤄지지 못하고 대한민국 선수단만 모인 가운데 코리안 하우스에서 한국인의 밤 등 행사를 갖고 선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수간의 교류의 장을 펼쳤다.

10월 14일 2018년 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 대한민국선수단은 꼬마요란 선수촌에서 해단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술라웨시 재난 구호 성금 4,000달러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전민식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제공: 연합뉴스)

대구광역시, 술라웨시 빨루 재난 구호성금 전달

지난 10월 7일,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참석차 ‘코리아하우스(술탄호텔) 개관식’을 방문한 대구장애인체육회 광동주 사무처장을 통하여 재난구호성금 10,000 달러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전민식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덮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심각한 생존 위협과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권시장은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과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국경일 기념 행사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김창범) 주최로 개천절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행사가 10월 2일 (화) 저녁 자카르타 웨스틴(Westin) 호텔에서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예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 우스만 샵타오당(Oesman Sapta Odang) 상원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하원 수석부의장, 하니프 다키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 소프얀 잘릴(Sofyan Djilil) 농지공간계획부 장관, 하디안 수민타앗마자(Hadiyan Sumintaatmadja) 국방부 사무차관 등 고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 주재 각국 대사부부 및 외교단, 한인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래를 함께 여는 우정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중부술라웨시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김창범 대사의 인사말에 이어 예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의 답사와 케익 커팅 및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은 애국가와 인도네시아 국가를 부르고 인도네시아 민요와 우리 밀양아리랑을 합창하며 본 행사 주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주인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원에서 마련한 한국문화 체험장이 준비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직접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도록 하여 한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01



03

사진으로 본 2018 장애인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01.개회식

02.남북단일팀 탁구(T6-7) 4강 확정후 북측: 김문철체육상, 전혜자사무총장,강태삼부단장, 전민식단장, 남북선수 및 감독과 코치

03.남북단일팀 수영 계영 경기응원 (남.북 선수단장) 및 동메달확정으로 북측홍보 홍기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04.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회장(휠체어), 남.북 선수단장 및 탁구감독(북) & 코치(남)

05. 선수촌 입촌식때의 남.북 선수단장(전민식 & 정현)

06.07.08.민주평통 상임위원님들 양궁경기장에서 한국전 응원하며 현지인 들과 함께 응원도 리더하고 함께 하는 모습



02



04



06



05



07



08

제99회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개최

지난 10월 1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강희중) 제99회 전국체전 출정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출정식은 9월 29일과 30일 슬라웨시 섬 빨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스나미로 인한 많은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강희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선수단은 체전 기간 동안 단체 숙식을하며 경기를 하는 결집력 강한 한인단체이다. 소정의 좋은 성과를 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을 다시 한번 선보일 것이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체육회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남은 많은분들의 응원을 기대한다”고 포부와 기대를 밝혔다.

김창범 대사는 “단복을 입고 체전에 함께 출전하고 싶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 때 한인사회의 위상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남아있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대신하였다.

이강현 단장은 출정사를 통해 “익산 전국체육대회에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발전에 노력하신 모든 선배님들에 뜻을 받들어 제99회 익산 전국 체전에 참여하는 우리 전 임원과 선수단 일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우리에게 모든 기량과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겠다.” 밝혔다.

이어서 방진학 사무총장의 출정보고, 염인규 선수와 성윤경 선수의 선수 선서, 이강현 단장에게 단기 전달로 이어졌다.

이날 출정식에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임원과 선수 50여명과 대사관 김창범 대사, 한인회 신기엽 명예고문, 한인단체장, 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 코리아하우스 전혜자 지원단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 Pak 이눅 부회장, 인도네시아 여성비즈니스회(IWAPI) Ibu 헬른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출정식을 함께 축하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펼쳐졌으며 인도네시아 팀은 임원과 선수 113명이 7개 종목에 출전하여 17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메달을 놓고 경쟁하였다.



제99회 전국체전 인도네시아 선수단 성과

금 (2)	볼링	남 2인조	조환국, 조현학
	볼링	여 5인조	전인옥, 유미자, 고순옥, 오경희, 이선영, 성윤경
은 (3)	볼링	여 2인조	고순옥, 전인옥
	축구		"정필규, 신재민, 선동민, 곽승현, 한지호, 김배진, 김복래, 박모세, 백승재, 서형규, 백남지, 신현준, 염인욱, 김정태, 구현회, 김지민, 전진, 백병인"
	태권도	여 -49kg급	딘다
동 (5)	볼링	남 5인조	조환국, 이상호, 김유동, 나선규, 조현학, 이동현
	스쿼시	여	한미혜
	태권도	남 -58kg급	최광용
	태권도	남 -80kg급	서보성
	태권도	남 +80kg급	심우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일본	9	8	3
2	호주	4	4	5
3	미국	4	4	4
4	괌	3	0	0
5	뉴질랜드	2	3	7
6	인도네시아	2	3	5
7	홍콩	2	1	5
8	중국	2	1	3
9	필리핀	1	1	6
10	말레이시아		4	
11	사이판		1	1
12	스페인			3
13	캐나다			2
14	베트남			
15	브라질			
16	아르헨티나			
17	영국			
불참	독일			
		29	30	44

(제공: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사무국)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프로덕트작전을 수행 중인 네덜란드군

지난 호에 이어

네덜란드군 제1차 공세 - 프로덕트 작전

(공화국은) 내부로부터 점차 붕괴되고 있다. 정당지도자들은 다른 정당지도자들과 대결하고 정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복되며 교체되기를 반복했다. 무장세력들은 지역분쟁에서 자기들 잇속만을 챙기고 공화국의 각 지역들은 중앙과 연계하지 않으려 한다. 저들은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된 바 네덜란드 정부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동인도제도의 각 지역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음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

- 전 동인도제도 총독 H.J. 반목의 첫 네덜란드의 '경찰행동'에 대한 변호

그러다가 1947년 7월 20일 네덜란드군은 '프로덕트 작전'이라 불리는 대규모 군사공세를 감행함으로써 링가자티 조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네덜란드측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측이 링가자티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동인도제도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 "경찰행동"을 취한 것이라 강변했다. 그들은 일본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주권국가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적대국이 아닌 '반란지역'으로 간주했으므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전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경찰행동'이란 용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이 작전에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자체군대인 KNIL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는 본국의 왕립 네덜란드군도 인도네시아에 추가 파병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네덜란드는 이미 해병대 5천 명을 포함해 25,000

명의 지원병들을 먼저 파병했는데 후속 작전수행을 위해 그 후 추가징집된 대규모 병력이 속속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상태였다.

네덜란드군은 전투기와 기갑부대를 동원해 자바와 수마트라의 주요도시와 항만을 공격했고 당시 TNI(인도네시아 정규군)로 재편된 공화국군 병력규모는 50만 명에 달했지만 여전히 조직과 장비, 경험에서 네덜란드 군의 상대가 되지 못해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다. 네덜란드군은 공화국군을 족자 지역으로 몰아붙였고 급격히 밀려나는 전선에서 머뭇거리다 적 후방에 고립된 일부 공화국군 부대들은 도시와 마을의 근거지를 불태우고 산악과 밀림 속으로 들어가 게릴라가 되었다. 네덜란드군은 이 작전을 통해 수마트라의 유수한 플랜테이션들과 자바의 유전 및 탄광 등을 통제권에 두었고 수십 개의 항구들도 손에 넣었다.

한편 국제적인 간섭과 조율을 통해 성사된 링가자티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네덜란드는 또 다시 국제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호주와 신생 독립국 인디아는 유엔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고 소련과 미국도 인도네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상선들은 호주의 항구에서 부두노동자들의 반네덜란드 시위로 하역도 할 수 없었다.

그사이 샤리르의 3기 내각이 링가자티 조약체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수카르노는 아미르 샤리프딘을 후임 총리로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토

록 지시했다. 이 내각은 ‘극좌내각’ 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당과 공산당, 예전 BTI 당 및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내각에 진출해 전면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샤리르는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가담해 뉴욕으로 날아가 유엔에서 인도네시아 문제에 대한 탄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고 GOC(Good Offices Committee)라고 불리는 중립국 중재기구를 설치해 휴전을 감독키로 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GOC는 호주(인도네시아 측 선택. 대표 리차드 커비), 벨기에(네덜란드 측 선택. 대표 폴 반 지랜드), 미국(중립, 대표 프랭크 포터 그레이엄)의 사절단들로 구성되었다. 유엔의 요구에 의해 결국 네덜란드군과 공화국군 사이에 1947년 8월 4일 휴전이 성립되었고 네덜란드는 또 다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침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휴전 후에도 공공연히 진행된 군사작전 중 1947년 12월 9일 루카스 꾸스파리오라는 공화국 전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군이 까라왕 소재 라와거데 마을주민 431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네덜란드군 사령관 사이먼 헨드릭 스폴 육군대장은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알폰스 위넨 소령의 처형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체조사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1월 12일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사건이 매우 계획적이고 무자비하게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GOC 의장 리차드 커비(호주), 폴 반 지랜드(벨기에), 프랭크 포터 그레이엄(미국)

강산이 여러 번 변한 후인 2008년 9월 8일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생존자들이 네덜란드 정부에게 이 학살사건의 책임을 물었고 네덜란드 측 변호사는 2009년 11월 24일,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네덜란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답변서한을 보내왔다. 이 서한은 인도네시아 측은 물론 네덜란드의 회의 의원들로부터도 격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NRC 한델스블라트같은 주요 신문은 전쟁범죄엔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다.

그리하여 10명의 생존자들은 2009년 12월 네덜란드를 법정에 고소했고 2011년 9월 14일 법정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네덜란드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판결했다. 네덜란드는 라와거데 학살사건의 원고와 미망인들에게 각각 2만 유로(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고 더욱 구체적인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12월 9일 네덜란드 대사는 “우리는 64년 전 네덜란드군의 행위에 의해 가족과 동료주민들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고(중략),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해 당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생존자들마저 하나 둘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당시 약속한 2만 유로 보상금의 지급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쩌면 네덜란드는 정신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당시 네덜란드 법정은 ‘네덜란드가 자국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 고 판결했는데 이는 1947년 이 사건 발생 당시 학살당한 라와거데 주민을 네덜란드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였으므로 이는 인도네시아가 당시 네덜란드의 영토였음을 암암리에 주장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했다.



‘마침내 라와거데 주민들에게 공의가 도래했다’라는 패널을 든 학살 생존자들

렌빌 조약

네덜란드군은 프로덕트 작전을 통해 서부자바 전역과 중부, 북부자바의 북쪽 해안선, 수마트라의 주요곡창지대를 장악했고 해군을 동원해 필수 식료품, 의약품과 전쟁물자가 공화국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해상에서 봉쇄했으므로 네덜란드에게 목줄을 잡힌 공화국 지역의 경제상황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그 결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미르 샤리푸딘 총리는 판중쁘리옥 항에 닿을 내리고 있던 미군함 USS 렌빌 선상에서 네덜란드와 협상을 진행했다. 절박했던 인도네시아가 많은 부분에서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네덜란드의 결과적 외교승리라고 평가되는 이 렌빌조약은 1948년 1월 17일 양측이 서명을 마쳤다.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폐기된 링가자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주선한 렌빌조약에 의해 네덜란드군의 진출 지역을 연결한 반묵라인(Van Mook Line)이라 일컫는 경계선을 따라 휴전이 발효되었다. 문제는 그 라인 건너편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던 공화국군의 강력한 거점



USS Renville

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는 점이였다. 이 조약은 프로덕트 작전으로 네덜란드가 탈취한 지역을 네덜란드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반목 라인이라 명명된 휴전선 건너편에 남아있는 모든 병력들을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군에게 점령당한 서부자바 지역에서 아직 저항을 계속하던 스까마지 마리잔 까르토수위르요가 이끄는 다룰이슬람 게릴라(Darul Islam guerrilla)는 이 조약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공화국에 대한 충성맹세도 철회하며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양쪽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 그 심정은 십분 이해된다. 하늘을 찌르던 그들의 애국심을 차치하고서라도, 공화국 정부가 국토는 물론 적전선 후방에 남은 전사들이 목숨바쳐 싸워 온 가치마저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는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다룰이슬람은 네덜란드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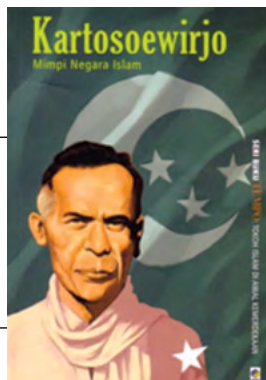
터 독립한 후에도 서부자바에서는 물론 남부 술라웨시와 아체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 유혈봉기를 일으키는 등 두고두고 수까르노 정권을 괴롭히게 된다.

렌빌조약의 조항들은 네덜란드 점령 지역의 정치적 미래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도 포함하고 있었다. 조약의 성사를 위해 공화국 측에서 많은 양보를 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호의를 산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인종적 다양성을 이용해 점령지에 괴뢰국가를 세워 지역간 민심을 이간질하고 공화국을 견제하려고 공작했다. 네덜란드는 링가자티 협정 이전부터도 이미 보르네오와 셀레베스에 자신들의 괴뢰정부를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지역별 국민투표는 네덜란드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을 포함한 렌빌조약에 아미르 샤리푸딘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공화국 정치지형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재임 초기 연정 파트너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미르가 렌빌조약에 서명하자 마슈미당과 PNI가 즉시 등을 돌렸고 자기 당이 추천한 장관들을 사퇴시켰다. 궁지에 몰린 아미르 역시 1948년 1월 23일 총리직을 사임하며 내각 총사퇴가 이루어졌고 부통령 모하마드 하타가 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다룰이슬람의 지도자 스까마지
마리잔 까르토수위르조와 그들의 깃발





2018년 10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환율비상' 인도네시아, 12조원 규모 채권 발행키로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최소 11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프르타미나(PT Pertamina)와 광산업체 아사한 알루미늄(PT Asahan Aluminum, 이하 이날룸)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와 재무부도 연 말에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프르타미나는 20억달러, 이날룸은 4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PLN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각각 20억달러와 3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지표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5.2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지만,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이달 23일 달러당 1만5천208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10% 이상 낮아져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50%포인트 인상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전날 열린 금리 결정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현행 연 5.75%로 동결했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아껴둔 것으로 풀이된다. BI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연 5.1%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속 '안정화' ...성장 기대감 여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신흥국 내에서 인도네시아 안정세가 돋보인다. 특히 양호한 경제 지표와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소식 등에 신흥아시아 대비 상대 부진이 완화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직 통화 절상은 미흡하나 절하 압력이 주춤한 가운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가 추가적으로 가세할 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진정될 것 이란 분석이다.

23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지난 22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15포인트(0.05%) 오른 5,840.44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일 5,756.62로 떨어진 후 83.32포인트(1.45%) 회복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미국 증시 폭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흔들렸다. 여기에 신흥국 통화 가치 변동성을 높이는 대외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루피아화 가치 절하도 지수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점이 건전성 우려를 자극했다. 실제 지난 6월 이후 신흥국 환율 흐름을 살펴봐도 경상수지 적자가 높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더 높은 환율 변동성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거주자(경제활동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연인과 더불어 법인, 국제기구 등을 포함)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회계기간인 1년) 동안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종 수입 감축 정책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대응 하고 있어, 추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경상수지 적자 개선과 환율 안정 효과가 일정 부분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추가 가시화될 시 경상수지 개선과 그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는 일정 부분 기대 가능하다” 고 의견을 냈다.

그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경상수지 적자 등 건전성 개선을 점차 기대 가능하다. 막연한 불안에 심화됐던 금융시장의 변동성 진정을 기대해본다” 며 “여기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재개 시 증시 불안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인니 섬유 산업, 에티오피아의 급성장에 '경계'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에티오피아의 섬유 산업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조만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하고 있다.

API의 에이드 회장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과세 및 공장 용지 취득 등으로 섬유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며 “중국 기업의 진출이 진행됐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신타 부회장(국제관계 담당)는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가까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의류 제조 대기업 뻬 브라더스(PT Pan Brothers Tbk)의 한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제품은 하위 중산층 용이며, 품질면에서 인도네시아 제품보다 열등하다” 고 지적했다. 에티오피아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한편 에티오피아 올해 7~8월의 섬유 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2,530만 달러였다. 에티오피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섬유·의류 산업은 매년 51%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인니 노동부, 2019년 주최저임금 8.03% 인상 결정

인도네시아 2019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폭이 전년 대비 8.0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니프 노동부 장관이 내년 주최저임금의 인상률을 8.03%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 8.71% 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로, 이 인상폭을 적용하면 2019년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 임금은 394만 972루피아가 된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15일 전국 주지사들에게 공포한 노동부 장관 안내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5.15%, 인플레이션을 2.88%로 계산해 내년의 주최저임금 인상폭을 8.03%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KSPI)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올해 수준에서 20~2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의 미라 수미랏 회장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SPI 측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루피아 환율 하락,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필품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현재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수준(KHL)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는 견해를 재차 표명했다.

OECD “국영 기업 부채로 재정 위험” ...중소기업 지원도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의 인프라 개발로 인한 부채의 증가가 정부의 새로운 재정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OECD 인도네시아 경제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특히 사업 지연이나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정체되어 정부가 지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또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도 밝히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 고용 개혁에 의한 정규직 비율 상승 등을 꼽았다.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영 기업이 인프라 개발 등의 발전에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는 현상은 “간접적인 재정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영 석유 회사인 PT Pertamina와 국영 전력 PLN이 세계적인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양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PLN은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로 올해 상반기(1~6월) 5조 3,000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했다. Pertamina도 상반기 매출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LN을 포함한 국영 기업 3개사에 총 17조 8,000억 루피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PLN은 이 중 10조 루피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중소기업 R&D 투자 비율은 0.1%

OECD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동시에 발표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창업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R&D 지출 비율이 세계 평균인 2.3%를 크게 밑도는 0.1%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는 2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국가 고용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과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OECD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5회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후기

융합,소통 그리고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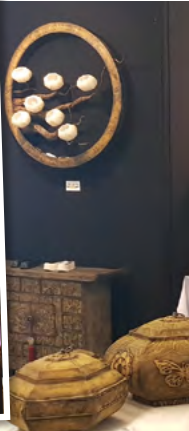
글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자카르타 대형 쇼핑몰인 리브 꼬망물 아프리움에서 제5회 재인니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회장 박형동)종합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문예총 종합 예술제는 ‘융합, 소통 그리고 교류’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시, 공연, 시연 그리고 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날인 8일 오프닝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한국의 아름다

움이 적도나라인 인도네시아에 널리 퍼져 나갔다.

종합예술제의 개막식은 서은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재인니 한인스트링 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의 트리오 연주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이 올랐으며 국악사랑(단장: 장방식)의 가야금 연주와 자카르타 한인무용단(단장: 정방울)의 진주교방 굿거리 춤으로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전시는 루시플라워회(회장:최정순)의 꽃꽂이 전시, 서예협회 정기전(회장:송판원) 인니문인협회(회장:서미숙)의 시화전(특별참여:공광규시인), 월화차회(회장:이춘순)의 다도시음, 한지공예(대표:김경애)의 전통한지공예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초청 전시로는, '복주머니' (이정효 작가)와 '복을 부르는 나비(Sasya Tranggono 작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두나라 문화가 소통하는 볼거리 풍성한 수준 높은 전시회가 열렸다.

일주일 동안 전시 이외에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다. 한복 입어보기 체험, 활쏘기 게임, 포토존(게임캐릭터,경복궁후원) 및 한지공예, 사물놀이(한바패, 회장: 박형동), 서예(서예협회), 문학행사 3행시 체험(문인협회) 그리고 한복(한국문화원) 체험을 통해서 한인들과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였다.

13일(토)과 14일(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의 초청공연인 가수 홍순관의 '엄마나라 이야기' 라는 동요와 시, 노래 콘서트가 개최되어 한-인니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와 노래를 통한 아름다운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전통춤과 무용을 보여준 자카르타 한인 무용단의 진주 교방 굿거리 춤과 부채춤, 한바패의 진도북놀이 그리고 초청공연 열터의 사자놀이가 관람객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더욱이 재인니 한인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JKCC 어린이 합창단(단장: 안영수), 아르떼 여성 합창단(단장: 채영애) 그리고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단장: 변영극)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멋진 음성으로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로 하나된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었다.

한인문예총 17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주최한 문화예술행사 폐막일인 14일에는 초청공연 크로스오버(서울아츠 앙상블: 서울예대팀)로 시작하였다. 마지막 공연날에도 한국 전통문화, 클래식과 현대음악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초청공연 열터의 사물놀이, 판소리와 가야금, 자카르타 한인 무용단의 부채춤, 극동방송 합창단(단장:신정일)의 합창, 초청공연 JIKS Brass Band(단장:백형균)





의 브라스 연주와 마지막으로 색소폰 동호회(회장: 박의태)의 색소폰 연주로 일주일간 문화예술 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0월 한국문화주관을 맞아 K-pop, K-Food, K-Art, K-컨텐츠등 Korea 플랫폼속에 18개 복합 행사를 만들어 그중 한쪽지 행사를 문예총이 맡아 진행한 문예총 종합 예술제는 총 24쪽지중 35개의 컨텐츠를 만들어 총 610분 공연시간과 7일간 전시로 한국문화 교류에 큰 공여를 하였다. 특히 열터 사자놀이는 프랑스 관객이 직접 사자탈을 쓰고 공연에 참석하여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민이 함께한 이번 종합예술제는 인도네시아 땅인 리뽀 꼬망몰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로 가득했고 한국의 가을을 물고왔던 2018년 10월의 아름답고 멋진 행사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괴테는 세상에서 해방되는 일은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세상과 가장 확실한 관계를 갖는 데에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 눈을 해맑게 해주는 꽃, 아름다운 서예와 한지공예, 다양한 음악과 춤을 담은 이번 제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는 자카르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 가는 평온한 작은 쉼터였다. 한국에서는 K-Pop과 드라마를 통해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이곳 인도네시아는 한인민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더 깊게 알리는 소중한 축제였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명언에 '서로를 모르면 사랑





할 수 없다' 는 말처럼 한국 문화와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뜻 깊은 행사였다. 한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과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도 관람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최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를 위해 관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Palu기금 모금 행사도 개최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쓰나미 희생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를 문화 예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

해서 더욱 우호적이고 단단한 국제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국의 가을을 맞이하여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시원한 바람 같은 예술제를 치루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문예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과 단체회장님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후원: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한인회장, 이호덕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한인회 부회장, 박형동 문예총 회장, 강희중 대한체육회 회장, 박재한 한인회 수석부회장, SAMSUNG, Lippo Mall Kemang, CJ뚜레쥬르 인도네시아





소고기 해장국 Sogogi Haejangguk

글: 양소연 (전 KBS World Radio 방송작가)

어느새 벌써 11월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 계절감이 무뎠어서 언제부터 목련 꽃이 피고, 가을 하늘은 어떤 색이었는데, 한겨울의 쨍한 찬 바람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큰 상점에서 들리는 캐럴 음악이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고 ‘아.. 이제 연말이구나’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연말계획으로 바쁘신가요? 연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나 올 해에 안에 끝내야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친지들에게 안부인사 연락이나 만날 약속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연말엔 술을 마실 일이 많은 때 이기도 합니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한국사람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해장음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 충청남도 천안의 순대국밥, 경상북도 경주의 묵 해장국, 제주도의 오분자기 뚝배기, 전라남도 무안의 연포탕, 충청도의 다슬기 해장국 등이 유명합니다. 꼭 술 마신 후가 아니라도 추운 겨울에 흰 밥에 따뜻한 국물과 시원한 김치면 온 몸이 노곤노곤 기분 좋게 풀리는 그 기분이 참 좋지요.

이번 Aneka Masakan Korea에서는 재료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는 더 쉬운 소고기 해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Bahan-bahan

Daging sapi 500g
Lobak 300g
Taoge panjang 400g
Jamur 200g
Daun bawang 3 buah
Bawang Bombay 50g
Telur ayam 1 butir
Bawang putih yang dicincang halus 1 sendok makan
Bubuk cabe merah 1 sendok makan
Garam 1 sendok teh
Kecap asin atau gukganjang 1 sendok makan
Sari air jahe 1 sendok teh
Minyak goreng 3 sendok makan
Merica dan minyak wijen sedikit

Cara memasak

1. Siapkan daging sapi yang tidak berlemak dan empuk, kemudian diiris dengan ukuran sekitar 1 X 4 X 1 cm.
소고기는 기름이 적고 부드러운 국거리로 준비해서 1 X 4 X 1 cm 크기로 잘라줍니다.
2. Potong lobak dengan ukuran yang sama dengan daging sapi
무도 소고기와 같은 크기로 잘라 둡니다.
3. Panaskan penggorengan lalu tuangkan minyak wijen. Masukkan daging sapi dan lobak yang telah diiris bersama bawang putih yang dicincang halus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넣고 미리 잘라둔 소고기와 무를 곱게 다진 마늘과 함께 볶아 줍니다.
4. Setelah bagian luar daging mulai matang, matikan api
고기가 어느정도 익으면 불을 꺼 줍니다.
5. Masukkan minyak goreng dan cabe bubuk merah ke dalam panci, lalu panaskan dengan api kecil.
냄비에 식용유와 고춧가루를 넣고 불을 약하게 조절해 둡니다.
6. Terus diaduk hingga warna minyaknya berubah menjadi merah
빨간 고추기름이 나올때까지 고춧가루가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7. Setelah minyak cabe merahnya sudah siap, masukkan daging sapi dan lobak yang telah dioseng-oseng bersama dengan sari air jahe dan kecap asin atau gukganjang.
고추기름이 준비되면 볶아둔 소고기와 무를 냄비에 넣고 생강즙과 국간장도 함께 넣어 줍니다.

8. Tuangkan air putih, kemudian didihkan
물을 넣고 끓여 줍니다.
9. Setelah kuah sudah mendidih, masukkan daun bawang yang diris panjang-panjang
bersama jamur dan bawang bombay yang diiris panjang-panjang
국이 끓으면 준비해 둔 파와 버섯, 양파를 함께 넣고 한소끔 끓여줍니다.
10. Tambahkan garam dan merica
소금과 후추로 마무리 간을 해 줍니다.
11. Masukkan telur ayam yang dikocok. Dan matikan api. Sogogi Haejangguk siap disaji.
달걀을 풀어 넣고 국 불을 꺼 줍니다. 소고기 해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Menu hari ini rasanya cukup pedas tetapi cara memasaknya mudah. Apalagi bahan-bahannya mudah didapat. Kalau Anda tidak begitu suka masakan yang pedas, Anda dapat mengurangi bubuk cabe merahnya. Dan Anda bias menggantikan kecap asin atau gukganjang dengan kecap ikan Korea atau aekjeot.

Sebentar lagi bulan terakhir tahun ini segera datang. Untuk dapat memulai tahun baru dengan lebih bersemangat, bereskan dahulu hal-hal yang belum selesai. Tinggal hanya satu bulan saja. 1 bulan bisa saja dibilang pendek. Tetapi bisa juga cukup panjang. Walaupun waktu kita terbatas, kita harus menggunakannya dengan bijaksana. Setuju kan? Bagaimana.. Anda sedang melewatkan waktu bersama teman-teman, keluarga atau orang yang Anda cintai? Pasti menyenangkan. Sekian Aneka Masakan Korea edisi bulan ini. Selamat mencoba. Terima kasih.

Kosakata edisi bulan ini

1. Jamur : 버섯

Jamur tiram 느타리 버섯, jamur kancing 양송이버섯, jamur enoki 팽이버섯, jamur kuping 목이버섯, jamur shintake 표고버섯

2. Ukuran : 크기

Apakah ada kursi yang lebih besar daripada ini?
이것보다 더 큰 크기의 의자 있나요?

3. Setelah : ~한 후에

Tolong buka jendela setelah berhenti hujan.
비가 그치면 창문을 열어 주세요.

4. menggantikan A dengan B : A는 B로 교체하다

Saya mau menggantikan baju ini dengan baju merah itu.
나는 이 옷을 저 빨간색 옷으로 바꾸고 싶어요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술라웨시 지진 해일 피해 복구에 70억 루피아 지원

코린도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Yayasan Korindo)이 9월 28일 강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술라웨시를 위해 70억 루피아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9월 28일 술라웨시 섬 주도 팔루와 인근 어촌 동갈라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 이후 BNPB(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가 지난 10일 밝힌 사망자수는 2천45명, 중상자는 1만679명, 실종자는 671명이다. 그러나 쓰나미의 여파로 지표면이 물러지는 지반 액상화 현상으로 땅에 삼켜지듯 피해를 입은 마을이 세 곳에 달하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린도 그룹의 주력사업 제품인 합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0월 11일 오전 11시 PMI(인도네시아 적십자사) 본부에서 열린 지원 협약식에서는 승범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겸 코린도 그룹 수석 부회장과 이순형 사회공헌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부총재인 기난자르 까르타사스미타(Ginandjar Kartasasmita)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약속한 지원은 총 4종류의 합판으로 112,200장(약 1,100㎡)에 달한다. 이는 일반 합판을 비롯해 콘크리트 양생에 쓰이는 코팅 합판 등이다.

현재 팔루 지역에서만 6만 7000여 채의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된 술라웨시 재난 지역.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도 집계 중이다.

이런 재난 지역에 임시 숙소 및 마을 복구시에 일반 합판을 비롯해 콘크리트 양생 등에 활용되는 합판들은 필수 건축 자재들이다.

11월 10일부터 파푸아 지역의 코린도 합판회사에서 합판 선적을 시작했다. 이후 파푸아에서 선적을 완료한 선박은 깔리만탄에 위치한 두 개의 합판 회사를 들러 합판을 싣고, 피해 지역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선박은 11월 초쯤 재난 구호 현장 인근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에 사용되는 선박, 운임비 또한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도착한 합판은 피해 현장에 있는 PMI(인도네시아 적십자)와 협력해 재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8월에 일어났던 롬복 지진에서도 긴급 구호 물품들을 신속히 전달해 피해자들을 도왔다.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 재단인 Yayasan KORINDO를 설립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다.

(제공 : 코린도 그룹 홍보실)





Emilie French Restaurant (세노파티)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안녕하세요~여러분! 지난 달에 소개해 드린 베트남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좋은 점은 맛있고 분위기 있는 고급식당을 한국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식, 일식, 중식 등 아시아 음식에 비해 프랑스 음식은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카르타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을 준비해 봤습니다^^

Emilie French Restaurant은 세노파티에 위치한 한국식당 청담가든과 마포갈매기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오고 다니면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식당에 들어선 순간 여느 식당과 다르게 아늑한 느낌이 마치 가정집에 온 느낌이 듭니다. 보통 프랑스 식당 하면,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방문하기가 다소 꺼려지는데요. 이 곳에서는 합리적인 세트 메뉴(2코스 280,000루피아++, 3코스 340,000루피아++)를 판매하여 저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코스 메뉴를 주문하기 전에, 건과류가 있는 유기농 식전 빵과 가벼운 애피타이저를 제공받습니다. 전채요리로 나온 음식(Duck Pate)이 메인음식을 먹기 전에 입맛을 돋아주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앙트레 메뉴로 으깬 감자 위에 잘게 다진 참치회와 식용 꽃이 곁들여진 Le Thon과 송아지 혀와 노끼가 곁들여진 La Langue de Veau를 주문하였습니다. 매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메뉴를 주문하여 어떤 음식이 나올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은 음식의 비주얼과 맛이었습니다.

메인 코스로는 으깬 감자소스가 곁들여진 흰생선 스테이크인 Le Fletan과 오리 다리가 곁들여진 파스타인 Le Confit de Canard를 주문하였습니다. 분명 파스타를 주문하였는데 함께 나온 오리고기가 크고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서 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디저트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곁들여진 애플 타르트인 La Tarte Tatin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하자마자 직접 애플 타르트를 구웠는지 따끈따끈하면서도 달달하지 않은 홈메이트 애플 타르트 맛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디저트인 미니 마들렌(Madeleine)도 적당하게 달달하여 식사를 잘 마무리 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음식으로 유명한 구운 달팽이요리인 에스카르고(Escargots) 및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든 음식인 푸아그라(Foie Gras)도 이 곳에서 맛 보실 수 있습니다만, 세트 메뉴보다는 가격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이 곳은 2005년 말 오픈하여 프랑스인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곳으로, 자카르타에 있는 프랑스 식당 중 나름 유명한 곳입니다. 현지식, 한식, 일식, 중식 등이 지겨워서 새로운 맛을 찾고 싶으시다면, 프랑스 음식 어떠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Emilie French Restaurant

1. 음식 종류 : 프랑스 음식
 2. 가격대 : Rp 700,000 / 2인 기준
 3. 영업시간 : 월-일 11:30 ~ 22:30
 4. 전화번호 : 021-521-3626
 5. 위치 : Jl. Senopati No.39,
Senopati, Jakarta
- ※ Zomato 참고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gaeunsuh@hanmail.net

최 근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아온 지인들의 모임 및 문학 모임에서 이곳 인니생활에 과연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자카르타에서 사는 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교통은 가는 곳 마다 안 막히는 곳이 없으니 시내 나가는 일이 고역입니다’ 등등 인니생활의 고충을 털어 놓곤 한다. 자카르타에만 한국교민 수는 보통 5만 명 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교민 숫자가 3만 5천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년도 채 안되어 2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곳 인니에는 성공 반열에 오른 한인기업인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 현지 종업원들의 임금도 상승되고 부동산 경기도 예전보다 좋지 않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을 떠나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삶을 이루고 있는 한인들은 어떠한 사유가 되었건 이곳의 좋은 점을 늘어놓곤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말이지 요즘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좋은 점을 꼽으라면 막상 이거다 하며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이곳 인니의 생활환경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한국보다 누릴 수 있는 점들이 훨씬 많았다. 이곳 한인주부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가사도우미도 있고 또 운전사도 항시 대기하고 있기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주변 한인들을 통하여 깨닫는다. 그 속에서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생각해 보았다.

현지인 가사도우미나 운전사로 인해 육체적인 노동이 조금 덜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 마음에서 얻는 행복지수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정서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코 가볍지가 않기 때문이다.

주재원으로 또는 개인 사업가로 아니면 삶의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이곳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한인들이 정착하여 나름대로의 삶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장소와 환경만 다를 뿐이지 삶의 방식은 국내나 이곳이나 다르지 않다. 환경에서 오는 행복지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염원은 어찌면 한국에서 보다 더욱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생활하면서 각기 다른 인생과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현재의 입장에서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고 행복하고 그렇지 못해서 불행하지는 않다고 본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할수록 불행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 논리를 전혀 배제할 수야 없겠지만 과연 어느 집안인들 근심걱정이 하나라도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

날마다 좋은 환경에서 물질적인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의 불평과 근심은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거우나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행복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에서 얻는 기쁨이다. 더 나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루어낸 나만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산 너머 무지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매순간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까닭에 많은 교민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마다 한국을 찾는다. 육체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평화로운지 마음의 행복도 해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곳 인도네시아에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매년 10월에는 이곳 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다양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날들이다.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들의 삶에만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이번 문화예술 축제를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자신만의 특기나 취미활동으로 열정을 쏟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보았다. 바쁜 삶속에서 지쳐있는 자신에게 또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격을 갖춘 반면에 정작 지쳐있는 자신에게는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익숙지가 않다. 고마움의 표현이란 바로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음은 나만의 행복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이다.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소득이 없다 해도 말이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내가 기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가,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한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이런 관계들이 원만하고 행복해야 삶도 행복한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곳, 인도네시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은 행복을 점검해 보자. 분명 나 자신만을 위한 뜻깊은 힐링의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비교해
봅시다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안녕하십니까? 고인 여러분

지난 달에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를 거치는 경유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지인과 싱가포르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싱가포르 항공기에서부터 공항, 식당 등등에 쓰여진 인도네시아어를 접하고 “싱가포르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나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말이 통하던데 남, 북한말처럼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믈라유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용어, 통용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언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 공용어, 통용어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어인 한국어가 곧 공용어이자 통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와 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족 구성이 다양한 국가 또는 연합체에서 의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종족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종족 구성이 크게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서 독립 후 그들이 채택한 언어는 말레이시아어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또한 말레이시아어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종족과 의사소통에서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몇몇 도시 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영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족끼리는 중국어, 타밀어(인도의 타밀 지방 언어)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통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어는 말 그대로 나라의 언어, 공용어는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통용어는 공식적이든 공식적이지 않든 의사소통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말레이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교육에서부터 각 종족의 고유 언어 및 영어를 필수언어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중언어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공용어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용어으로써 영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hasa Melayu, Malaysia, Indonesia

국어, 공용어, 통용어의 의미 구분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시 지인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싱가포르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나요?” 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 말라유어를 사용합니다.” 입니다. 말라유어(Bahasa Melayu)는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브루나이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로 예로부터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지역에서 사용되어 오던 대표적인 통용어였습니다. 고대 말레이 왕국들의 활발한 해상 활동과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동, 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 등의 이유로 말라유어는 동남아 일대에서의 통용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말라유어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독립하고 뒤이어 싱가포르도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말라유어 로 나뉘어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다고 해서 자식들의 외모나 성격이 다 똑같지 않듯 언어도 마찬가지로 모태 언어가 같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 언어 모두 말라유어를 모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구조나 어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히 발음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의 a는 ‘아’ 발음을 그대로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으’ 와 ‘어’ 의 중간 발음을 내거나 ‘어’ 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usak’ 이라는 인도네시아어를 말레이시아에서는 ‘rosak’ 으로 발음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말라유어는 발음 자체가 남부 중국계 발음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말 끝에 lah를 많이 붙여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억양 또한 중국식 억양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의 경우 다른 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어 중에 아주 기본적인 어휘인 ‘ibu’ 는 ‘어머니’ 또는 ‘아줌마’, ‘선생님’ 등 다양한 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선생님께 ‘pua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어 ‘beda’ (다르다)는 말레이시아어로 ‘beza’ 라고 쓰고 읽습니다. 이렇게 어휘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사적, 지역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서구 열강이 침략하기 이전에 말라유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과 말레이 반도 쪽에 걸쳐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인도네시아에 더 많이 살고 있던 말레이족이 말레이 반도로 건너간 이유는 이전 왕국의 쇠퇴와 새로운 왕국의 출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이어지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영국령이 되었고 (일부는 포르투갈)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습니다. 서구열강은 식민지배를 위해 통치할 언어가 필요했고 당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으며 그 일대의 통용어로 사용되던 플라유어가 자연스럽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플라유어는 영국식 영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플라유어는 네덜란드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매우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섬의 종족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족의 언어와 인도네시아어가 결합해 파생 또는 차용되는 어휘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령의 말레이 반도에는 인도의 노동자(타밀 지역)들과 중국인(남부지역) 또한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사실상 현재의 말레이시아 종족 구성을 만들어 놓은 국가는 영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여 지금의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싱가포르의 플라유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959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우호협약을 바탕으로 통일 철자법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멀린도 철자법을 만들게 되었으나 1969년 양국의 관계 악화로 통일된 철자법의 공식적 사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 후 1972년에 인도네시아는 ‘완성철자법’ (Ejaan Yang Disempurnakan)을 공포하고 말레이시아도 같은 해 ‘신 말레이시아 철자법’ (Ejaan Baru Bahasa Malaysia)을 공식화함으로써 양국은 거의 동일한 로마자 표기체계를 자리 잡게 됩니다. 싱가포르 또한 로마자 표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같은 모태 언어로 출발한 이 세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변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세인 JIKS 11학년

새벽 4시 30분, 머스킷 코란 소리가 깊은 잠을 흔든다. 한 시간은 더 잘 수 있다는 뿌듯함에 다시 달콤한 잠에 빠져 들쭈 일어나라는 엄마의 목소리는 머스킷의 확성기보다 파워풀 하고 생생하다. 이뻐 포근한 이불을 재빠르게 포기하는 게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걸 안다. 눈꺼풀과 몸은 너무나 무거운데 식탁에 차려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금세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맛있는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들기름을 듬뿍 넣어 빠삭하게 구운 파래김아침이다!! 난 이 시간이 참 좋다. 약간은 긴장되어 기분 좋게 설레고 밤새 뇌와 심장이 깨끗해진 느낌!

아침 시간은 늘 그렇듯 빠르게 지나간다. 전투적으로 밥을 먹은 후 엄마에게 감사와 애교도 챙겨 드리고 등교를 위해 책가방 도시락 노트북 빌린 책, 담요까지 한 아름 장착하고 집을 나서면 캄보자의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가 어느새 먼저 나와 배웅한다.

로비 계단 아래로 내려서면 빛의 속도로 다가서는 회색 기장이 서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분도 늦지 않는 기사 아저씨가 매번 고마운 순간이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면 지구상의 오토바이는 모두 자카르타로 몰린 듯 어마어마한 오토바이 행렬이 가장 먼저 보인다. 열대지방임에도 가죽점퍼에 머플러 마스크로 멋지게 단장한 사람들, 아내와 아기까지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는 젊은 아빠는 작은 오토바이에 3명을 태우고도 아주 편안해 보인다. 불안한 건 그것을 보는 나만의 몫인가 보다. 급정거는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위태로워 보여 애써 외면한다. 요새 부쩍 많아진 연두색 고젝 조끼를 입은 기사들도 서둘러 어디론가 달린다.

아파트 앞 첫 신호가 바뀌고 습관처럼 창문을 내리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야자나무 위로 눈부시게 파란 하늘은 산신령이 살 거 같은 뭉게구름을 안고 따뜻한 햇살을 차 안까지 보내준다. 어느새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기사 아저씨는 매표소 직원과 반가운 인사를 한다. 늘 느끼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금새 친구가 되고 마음이 순하고 참 따뜻한 거 같다. 이때쯤 센스 있는 우리 아저씨 클래식 음악을 적당한 볼륨으로 틀어주신다. 순서처럼 찾아드는 꿀잠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행복한 선물이다.

얼마쯤 지났을까 자동차가 비포장 골목길을 들어서며 덜컹거리는 소리에 짧은 단잠을 깨고 창밖을 본다. 신기하게 매번 같은 장소에서 눈을 뜬다. 먼지가 가득한 골목엔 승승 뚫리고 깨진 벽 위에 화려하게 채색된 그림과 멋지게 그려진 낙서들이 보인다. 그 앞을 지나면 낮은 지붕의 구멍가게에 줄줄이 커피와 언젠가 먹어보리라 생각했던 불량식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가끔 나타나는 비쩍 마른 강아지도 반갑다. 저 강아지를 배부르게 먹고 싶단 생각을 볼 때마다 한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여자아이도 자주 보인다. 작은 몸집에 아무지게 아기를 안고 있는걸 보며 학교엔 언제 가려나 매번 걱정이 스친다. 그 앞으로 과자 껌질과 까만 봉지가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낮은 흰색 대문 안에 커다란 꽃나무가 있는 집을 지나고 나면 붉은색 꽃들로 낮은 울타리를 만든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이 보인다. 그 앞엔 러닝만 입은 아저씨가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할머니와 아줌마는 머리와 옆구리에 대나무 바구니를 이고 지고 분주히 걷는다. 언젠가 저 바구니 안을 본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즐겨 마시는 건강 음료인데 쌀, 강황, 생강이 들어간 시큼썩썩하지만, 몸에 좋은 자무(Jamu)다. 모르고 마셨다가 빨지도 넘기지도 못해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우리로 치면 홍삼 엑기스처럼 몸에 좋은 국민 음료이다. 빈 아쿠아 병이 잔뜩 쌓여있는 슈퍼까지 지나면 곧 학교 정문이 도착한다.

웬지 학교에서 보는 하늘은 더 높고 훨씬 커 보인다. 나만 그런가?

교정에 들어서면 아침에만 맡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냄새가 있다. 달콤한 흙냄새 새벽이슬을 머금은 나뭇잎과 신선한 풀냄새 일 년 내내 피는 꽃나무 향내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다. 식당 앞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교장 선생님이 보일 때쯤 어김없이 예비 종이 울린다. 이제 뛰어야 할 차례다.

교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창가엔 언제나 햇빛이 먼저와 환하게 머물러있다. 첫 교시는 수학 시간, 단정하고 예쁘지만 세심 잔소리 수학쌤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짝 다인 이가 외친다.

“아~~배고프다.” 이 말은 반 전체로 전염되어 우린 또 매점을 향해 달린다.

10분을 완벽하고 의미 있게 보낸 후 2교시는 화학 시간, 언제나 편하고 따스한 에너지를 주는 화학 선생님의 수업도 끝나면 달그락달그락 도시락을 꺼내어 먹는 소리가 들린다.

갑자기 커지는 웅성웅성 소리 후 순식간에 우린 도시락도 해치운다. 김치 볶음부터 달걀부침 오징어채며 별별 냄새가 진동하지만, 식사를 다 하고도 쉬는 시간 5분 남았다. 역시 우린 타고난 먹방의 신이다. 이제 3교시, 어제 늦도록 영화를 봤더니 기운이 없고 몽롱하다 정말 잘 참은 줄 알았는데 노트에 침이 흥건하다. 빠르게 3교시와 4교시가 끝나면 점심시간 난 빛의 속도로 숙제를 한다. 이 짧은 시간에 단어 시험준비도 하다니 엄마는 천재를 나신 게 분명하다. 오후 수업은 오전보다 빠르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다.

종례가 끝나고 교실 문가에 애들이 수군거린다. 교실 밖에 J가 있다. 인도네시아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잘생김의 정석 같은 그 아이는 언제나 스마트하고 스윗한 미소로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 이걸 전문 용어로 후광이라 하던가? 아무튼 난 그 빛을 따라 싫다는 짝꿍의 손을 부여잡고 화장실에 가자며 급하게 그 앞을 지난다. 짧은 만남, 긴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 내 짝꿍은 야속하게 빠른 걸음을 재촉한다. 운동도 공부도 약기도 뭐하나 못하는 게 없으니 나랑은 참 다르지만, 아무튼 나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반갑다 한다. 나만의 착각이라며 짝꿍은 쥐어박는 소리를 한다. 역시 눈치는 없고 머리만 좋은 나의 베프답다. 착각이 아닐 거라 믿으며 같은 반이 한 번도 안 된 게 애뜻한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슬픈 운명이 3년 내내 한마디 말도 못 해 볼까 하는 상상 속 진도가 나가면 세월 이와 승희의 합창 소리가 들린다. “배고파!!”

수업 마치고 빨리 오란 엄마의 커다란 얼굴을 애써 외면하고 교문 앞 빠당 집으로 순간이동 하면 깨끗이 닦아놓은 창문 안엔 아얌고렝(Ayam Goreng), 른당(Rendang), 각종 튀김들과 숯불로 구워낸 꼬치(Sate)와 생선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삼블뜨라시(Sambal Terasi)를 뜨거운 흰밥에 닭튀김과 함께 먹는 맛은 언제나 진리이고 천국의 맛이다. 아마 한국에 있다면 떡볶이나 김밥 어묵을 파는 분식점에 가겠지만 빠당은 훨씬 영양가 있고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

꼭 일찍 와야 한다는 엄마 음식은 오물오물 남남 일탈의 짜릿함에 가려지고 배가 부른 후에야 두려움에 몸이 빨라진다. “Tolong Cepat ke rumah pak!!” (“빨리 집으로 가주세요!!”) 아침에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그새 활짝 핀 나팔꽃과 붉은 썰비어가 바람에 웃는다. 햇빛이 눈부서 자동차 커튼을 닫으면 가장자리로 빠져 들어 온 햇살이 반갑고

아늑하다.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순간,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 선생님이 먼저와 계신다. 매번 먼저 도착한다며 눈을 흘기는 그녀는 혼을 내는 건지 놀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신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난 미안한 듯 살짝 시선을 내리깔며 최대한 불쌍하게 말한다. 그녀의 눈은 금세 따뜻해지고 입가엔 미소가 번진다. 내 말을 믿기로 했나보다. 나의 연출에 오늘도 무사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며 기다려주고 잘 웃고 축복해 주기를 좋아한다. 난 자카르타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니며 인도네시아 선생님과 도우미 아줌마 기사 아저씨와도 허물없이 지낸다. 그들은 서로 험담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넘기는 좋은 품성 또한 갖고 있다. 난 최선을 다하며 책임과 신의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이면서 따뜻하고 여유로운 인도네시아의 정서도 함께 갖고 있다.

먼 훗날 나의 어떤 순간에도 따뜻하고 명예롭게 기억될 이름 인도네시아!!

이제 햇빛은 사라지고 축복 된 나의 하루도 곱게 접히는 시간이다. 내게 허락된 행복한 일상과 건강에 감사하며 소중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기를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들국화

김준규

새벽을 씻어내는
작은 물소리
햇빛이 창문을 두드릴 때
터지듯 아침의 향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 쪽 빛 바람이 불어 오면
가냘픈 어깨 사이로 내미는 하얀 속살
서럽도록 갖고 싶은 너의 외로움
베개밑 불타는 모닥불
벽을 끌어안고 누워 기다리는 새벽
싸리꽃 환한 이 밤에
누이의 웃음처럼
꽃은 꾸역꾸역 피어나고



시작 노트,,,
파란 가을 하늘을 보노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햇빛에 반짝이는 국화 잎이다
거먹위에서 몸을 늘이던 여름은 구름에 씻겨 가고
쪽빛 하늘에 살짝 들어내는 국화의 속살이
오히려 서러운 것은 외로워도 다가가 안을 수 없는
저리도록 그리운 풋풋한 향기일 것이다
베개를 끌어 안고 눈을 비비며 하얀 밤이 되어도
간밤의 허전한 창가에 꽃은 무더기로 피어나고
가을은 또 그렇게 아린 기억속에 숨을 것이다

김준규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9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9회째를 맞이하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인터넷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2망 리포몰에서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긴 시간동안 문학상 시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연구원의 힘과 저력이 느껴진다. 2망몰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시상식과 축하공연은 상업적이기만 했던 무의미한 공간을 음악과 춤이 가득한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연뿐만 아니라 긴 로비를 가득채운 아름답고 독특한 작품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술전시회에 온 듯한 상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상식의 문을 활짝 열어준 오프닝 무대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 가믈란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kalangkang”이라는 곡이었다. ‘아름다운 연주단’이라는 뜻을 가진 비냥킷 그룹이 이 곡을 연주해 주셨다. 가믈란은 무려 1800여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의 자존심이자 신에게 닿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성한 의미를 품고 있는 악기라고 한다.

본격적인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에 앞서, 제2회 한글 에세이 대회 초대축하식이 진행되었다. 한국어과가 있는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우나스, 인도네시아교육대학, 그리고 가자마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회에 한국어를 배우고 사랑하는 많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글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 대회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관과 한인니문화연구원, 코린도그룹과 엘지그룹이 후원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가자마다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양승윤교수님께서 연구원에서 준비한 축하선물을 전달해 주셨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 Virlina Meyta Y. 꿈을 키워 주는 한국 드라마 Anastasia Hannas P. 인도네시아와 한국 ‘차이’ Puti Anggia S. -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만한 이 세 작품이 영광의 순간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해마다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축하 공연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네덜란드 강점기 때 식민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처참한 삶을, 글로써 세계에 알린 [막스 하벨라르]의 소설가, 물따뿔리의 삶을 기리고자 했다. 물따뿔리가 활동했던 반튼 주와 그 지역의 대표 종족인 바두이족을 초대함으로써 그 내용을 채웠다.

문학상 심사위원회에는 채인숙작가, 배동선작가, 이덕주평론가께서 수고해 주셨다. 시상은 장려상부터 시작되었다. 수상자(권혜준, 이아림, 조유리, 정찬용, 이향, 이정희, 이수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시상자들의 면면도 다채로웠다.

다음으로 비냥킷 그룹 축하공연이 다시 이어졌는데 Tari Walijamaliha 라는 춤이었다. 이는 아랍어로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막스 하벨라르 소설 속 주인공이 탄생한 반튼 지역의 종교적

인 전통춤으로 쾌활한 움직임을 통해 개방적이고 친절한 반트 사람들의 매력을 잘 나타내는 춤이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특별상은 인도네시아 예술단체에서 이번 인터넷 문학상의 취지에 공감하고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상이었다. 연구원이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인들과의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상생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예술가상은 이상원(까빨 아피), 김은정(복불복의 나라)께서 수상하셨고 시상에는 도예가 위디안또님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갤러리 중의 하나인 꼬망 에드윈 갤러리 대표 에드윈 라하르조님께서 수고해 주었다.

학생부 우수상은 김한글(아시안게임), 최인태(신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박주영(나의 계절 인도네시아)님이 수상했고 시상에는 물따뿔리 도서관의 우바이관장님, 코이카 김송주부소장님, 인문창작클럽의 부회장 배동선작가가 수고해 주셨다. 일반부 우수상에 정윤희(나의 스승 앙골롱), 박범진(한걸음 또 한걸음), 류제천(앙꽃에서 배우다), 시상에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사공 경원장님과 자카르타 통일위원회 한승도위원장,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백우정 교장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최우수상은 학생부 유희수(고향을 찾아주세요), 일반부 이해경(구농 살락)님이 수상했고 시상에는 상공회의소 안창섭 부회장님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최인실 사무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이 수상이 끝나고 반트주 아리아 비낭 킷 그룹이 다시 Tari Al Madad라는 춤으로, 언제나 선한 것을 위해 기도하면 신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323회의 문화탐방, 54회의 열린 강좌, 9회의 인터넷 문학상을 진행해왔다. 또한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함께 인도네시아 문화예술과 역사를 알리는 앞장 서 왔다. 한국에서 수많은 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의 전시와 강좌를 이끌었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문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어서 바두이 족 예술단의 앙골롱 부훈 연주가 시작되었다. 앙골롱 부훈은 바두이 족의 전통 앙골롱 연주로 풍요로운 수확을 내려주는 농사의 여신인 데위 스리를 기리고 비옥한 땅을 내려달라고 신께 비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학생부 안세인(하루), 일반부 박준영(익숙한 모순과 낯선 모순)님이 수상하였고 시상자는 주인니대한민국 대사님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님이다.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으로 자리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여 아쉬움은 남았으나 대사관에서 직접 시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대신 예총 박형동회장과 박미례 한인회수석님께서 시상해 주셨다.

이어지는 축하공연으로 서울예술대학교 예술단의 [논다논다논다] 공연이 이어졌다. 2층에서부터 길놀이를 시작해 꼬망물을 온통 사물놀이 가락으로 물들이며 놀이가 이어졌다. 짹 짹 달라붙는 듯 한 경쾌한 가락도 가락이거니와 머리 위에서 춤추는 현란한 상모돌리기를 보면서 BTS와 Kpop의 피가 다른 데서 오지 않았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수상자, 시상자, 공연해 등 준비하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무대로 올라와 오늘의 이 즐거운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시상식이 10회 20회 계속 이어나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함께 바라며 자리를 마무리 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후원: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원, 상공회의소, KOICA, PT. TAEWON INDONESIA, 자카르타 경제신문, 문예총, ATI



5th Korea Indonesia String Orchestra

<STRING FESTIVAL>

- Charity Concert for Pal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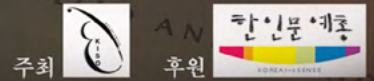
KIDS ORCHESTRA
STRING ENSEMBLE
KISO STRING ORCHESTRA

VIOLIN & VIOLA ENSEMBLE

CELLO ENSEMBLE

8 SOLOISTS

03.NOV.2018 04:30PM
BALAI RESITAL KERTANEGARA



삼원 중공업,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 솔라웨시 재난 구호성금전달



삼원중공업(대표이사 한창범) 김규선 부회장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하여 재난구호성금 50,000달러를 전달하고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삼원중공업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기간 중 인도네시아 국립해양경찰청과 해안경비정 5척 4천50만 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 행사, 서울예대 잇달아 초청

- 조코위 대통령 축하공연, 장애인 아시안게임 연이어 초청

- 한국, 인도네시아의 뛰어난 전통예술의 융합으로 'Oneness' 구현

2018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여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의 주최로 Korea House에서 개최되는 'Asian Para Games' 축하 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예술대학교가 초청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뛰어난 전통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어울림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다양성 속의 통일 (Bhinneka Tunggal Ika)을 지향하는 정신을 통해 하나됨 (Oneness)을 구현하고 'Asian Para Games'의 화합 정신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현재 한국 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학생 및 장애인 동문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등 예술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한국 장애 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을 선보여 2018 'Asian Para Games'의 정신을 이어갔다. 이번 무대는 자카르타 술탄 호텔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10월 11일 및 10월 12일 두 차례 공연되었으며, 출연자로는 서울예술대학교 양정웅 교수(연출), 무대감독(김해도담), 영상(송불휘), 이정표 교수(가야금), 김지호(실용음악 졸업생, 가수), 예대민속연구회(서울예술대학교 학생 동아리 - 김윤지(목중), 채희준, 김희진(사자탈)), 사물놀이 놀이패(이상훈(태평소), 최인영(뿡과리), 김태연(북), 이재완(장,소고), 진수경(장구)) 이외에도 박은지(해금), 조인호(기타), 신동윤(베이스), 정성훈(드럼)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인도네시아 관객과 한국교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 주었다. 특히 서울아츠앙상블팀과 인도네시아 가물란 팀이 함께 연주한 아리랑을 포함한 한국 전통 고전음악들은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준 모든 이들에게 한국의 멋과 희망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협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어서 한국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꼬망몰에서 펼쳐진 한인행사에도 초청 공연을 하였다.

13일 한인니문화연구원 제 9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 축하공연과 14일 한인문예총 주최인 제 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에 2회나 공연하였다.

서울예대는 방학마다 인도네시아 각지의 전통예술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양국 전통문화의 융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학이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전통 문화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뉴 폼아트 창출을 추구" 하고 있는 한국의 선도적인 예술 대학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문화의 융합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둥 공과대학의 스튜디오를 서울예술대학교 인터넷 화상 공연 시스템(컬처허브)으로 연결하여, 공동으로 그림자 인형극·서체(타이포그래피) 워크숍 등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국 예술가들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반둥공과대학의 까다르샤 수리아디총장은 지난 6월 서울예대를 방문해 "서울예대와의 인터넷을 통한 공동 예술과목 운영 덕분에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아트엔디자인분야 50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라며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문화원의 천영평 원장은 "서울예대가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한류 예술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서울예술대학교는 2016년 1월 한인니문화연구원과 MOU를 맺은 이래 파라아시안게임에 초대받기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함께하였다.



KEB 하나은행, JIKS에 장학금 전달



2018년 10월 3일 오전 11시 Mangkuluhur 빌딩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화수 KEB 하나은행장, 배도운 학교법인 이사장, 백우정 학교장 외 은행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은행은 1억 5천만 루피아의 장학금을 JIKS에 기증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KEB 하나은행의 CSR(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2017년 12월에도 이화수 KEB 하나은행장 개인의 명의로 JIKS에 1억 루피아의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 KEB 하나은행은 2018년 현재에 30만 고객이 이용하는 인니 30대 은행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는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된 서비스가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화수 은행장은 인니 미래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뿐 아니라, JIKS 통학버스 지원과 같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KEB 하나은행이 인니 핵심금융기관으로 더욱 성장하여,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018 JIKS Spelling Bee 대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는 2018년 10월 17일, 초등 Spelling Bee 본선대회를 개최하였다.

JIKS는 English Game Time, Global Leadership Camp In English, Talk About 등 다양한 영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Spelling

Bee 대회는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 라고 하는 ‘全美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를 본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하는 JIKS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이다.

지난 10월 10일 각 반별로 예선대회가 실시되어 본선진출자들을 가렸다. 본선대회는 단어를 듣고 먼저 버저를 누르는 학생이 정답을 맞히는 단체전과 본인에게 주어지는 단어의 철자를 맞춰 점수를 얻는 개인전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진출자들은 그동안 교과수업 시간을 통해 익힌 단어들과 평소 영어 독서를 통해 향상된 영어 실력으로 차분히 최선을 다해 단어 철자를 맞혔다. 각 반 학생들의 열띤 응원과 긴장 속에서 학년별 영광의 최우수 학생이 탄생하였다.

JIKS, 대구교대생 교생실습 실시

2018년 10월 15일(월) ~ 10월 19일(금) 5일간 대구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에서 실시되었다. 대구 교대와 MOU체결로 매년 1회 교생들이 JIKS에서 교육 실습을 받고 있다.

JIKS초등은 교생 실습을 통해 교생들이 미래 교사의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지도교사의 조언, 대표 교사 우수 수업 시연, 재외한국학교 교사의 역할과 해외생활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생들이 교직과 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교직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명의 교생들은 15일 첫 날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한 후, 학생과 교생이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실습을 시작하였다. 각 학급당 한 명씩 배치된 교생들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학교업무 등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실습에 참가한 최철화 교생(대구교대 음악교육과 2학년)은 “제 인생의 첫 수업을 JIKS에서 하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JIKS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영어중점교육을 보고 아이들의 뛰어난 영어실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2018 한국무형문화재주간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통한 공감, 소통 그리고 위로
- 10.26(금)~29(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봄으로써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염장(簾匠) : 발(簾)을 엮는 기술을 지닌 장인

위안과 치유, 그리고 공감 < 한국의 춤과 소리 >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한국무형문화재주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굿보러가자-한국의 춤과 소리’ 공연은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불어 닥친 재난 피해자와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한 위안과 치유의 무대로 구성하였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정영만 명인(국가무형문화재 제82호 남해안별신굿 보유자)과 남해안별신굿 보존회의 용선놀음, 수부시나위로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무대로 꾸민다. 이어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박경량 명무의 교방춤을 비롯해 한국의집 예술단의 화려한 부채춤, 신명나고 역동적인 장고춤과 진도북춤 등 다양한 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원장현 명인의 자유로운 변주를 느낄 수 있는 대금산조와 더불어 한국의집 예술단의 사물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판소리 무대가 펼쳐졌다.

아픔을 넘어 양국 우호의 장으로

또한,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가락과 음색으로 인도네시아 전통민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인도네시아 전통민요를 우리나라 전통악기 구성에 맞게 편곡해 남해안별신굿 보존회가 연주하는 무대를 통해 양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어디서든 한국 문화의 깃줄 역할을 하는 아리랑이 자카르타 공연장에 울려 퍼져 전출연진과 현지 교민, 인도네시아 관람객이 함께 부르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감동의 무대의 막이 내렸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굿보러가자·한국의 춤과 소리” 공연은 자카르타의 치푸트라 아트프리뉴어(Ciputra Artpreneur)극장에서 10월 27일 공연하였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조현중 원장)과 한국문화재단(진옥섭 이사장)은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천영평 원장)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8 코리아페스티벌 기간 중 ‘2018 한국무형문화재주간’을 개최했다.

10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2018 코리아페스티벌’ 기간 중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무형문화재 정(靜)·중(中)·동(動)’을 주제로 한국의 독특한 미(美)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재 전시 및 시연, 체험, 공연을 통해 우리 교민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통공예품을 통해 한국의 여름을 상상하다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한국의 여름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작품 31종 76점을 선보였다. 우리 선조들의 여름나기에 사용되었던 공예품 <채상(彩箱)·발(簾)·완초(莞草)·모시·선자(扇子)·유기(鑼器) 등>을 통해 한국의 여름을 상상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감할 수 있었다.

인간문화재의 제작시연을 비롯한 체험 : 전통 발(簾)과 궁중병과

또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제114호 *염장 조대용 보유자, 제38호 궁중음식 정길자 보유자)들이 전통공예품(발)과 궁중음식(병과)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함께 만들어

한국문화전 초대전 소망을 담은 민화



충북민예총 전통미술위원회 회원들의 민화 작품 50여점이 10월 19일에서 22일까지 한국문화원 전시장에서 펼쳐졌다. 오방색의 화려함과 섬세한 필선이 어우러지는 민화 전시장에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소리인 앙글룽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대나무에 실은 선율이 조선 후기 민초들에게 유행했던 민화와 잘 어우러졌다.

조선이 차차 기울어가고 일제 식민지배가 점점 강화된 시기에 시작된 민화는 민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그림 속에는 암울한 시기의 민초들의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낭만이 보인다.

천영평 한국문화원장은 “조선시대 그려진 독창적인 민화를 현대의 시각을 통해 민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 전시를 기획한 김은정 큐레이터는 “<소망을 담은 민화>라는 주제로 기획했으며, 우리 민화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그림으로 부귀다남공명, 무병장수를 바라는 서민들의 생활 감정과 세계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해줍니다.” 라고 기획의도를 말하였다.

인문창작클럽 이강현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민화 <나무꾼과 선녀>를 소개하면서 평화와 부귀영화, 행복을 추구하며 인류의 소망과 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서가 닮았습니다. 민초들의 착한 에너지가 닮아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민화가 바틱처럼 세계명품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바틱역사에 영향을 끼친 무명의 바틱 예술가처럼 무명의 근대적 천재예술가들이 우리의 민화사에 깊게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20일, 21일, 양일간 있었던 민화체험에 80여분이 참여하였는데 대부분 인도네시아 분들이었다. 에코 가방에 민화를 그려 넣고 작품으로 된 가방을 뽐내면서 가지고 갔다. 모두들 체험기간이 짧다고 아쉬워하였다.

충북민예총 조경애 위원장은 “<민화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교류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문화원에 민화와 물감 1세트를 기증해주었다. 기증작품 작가는 조경애, 정화순, 이순애, 이상금, 유옥자, 이종남 교류단 6분이다.

앙글룽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민화도 세계문화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나비아 나비아’ 를 부르며 연화도에 나비를 그려 넣었다. 그 나비의 날개짓으로 민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발목펌프 건강법

사람의 몸에는 여러 장기가 있다. 이 장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혈관이 막히거나 벽이 두꺼워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병들을 없앨 수 있는 “발목펌프 건강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목펌프 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을 앓던 사람이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관찰하다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펌프역할처럼 되어 10 미터 넘는 곳까지 물이 올라가게 되고, 야자수 열매에도 물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도 매일 몸을 많이 움직여 주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모든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대인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강제적으로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발목펌프 운동이다. 발목펌프 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들겨줌으로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 운반시켜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해 노폐물을 정화하고 피로도 풀어주며 운동이 부족한 사람의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운동법이다.

발목펌프운동은 발목을 상하로 움직여 충격을 주어 혈액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운동이며 발목을 50센티미터 높이로 들었다가 힘없이 떨어뜨려 충격을 주면 혈액을 비롯한 체액의 순환이 좋아지게 되어 체내의 노폐물이 신장을 거쳐 여과, 정화 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며 피부를 통하여서도 배출될 수 있으므로 하면 할수록 건강하게 될 수 있다. 발목의 상하운동은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운동과 같이 고통과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 없다.

책을 읽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족과 즐겁게 대화하면서도 전혀 지장이 없이 마음 편

하게 할 수 있다. 한번에 10분 정도의 운동으로도 근육펌프작용의 효과로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다. 발목펌프 운동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운동이다.

대나무나 맥주병 등을 누운 자세에서 발의 아래에 놓는다. 바로 누워 취침하는 자세나 앉아서 양 발을 편 자세 중 어떤 자세를 취해도 좋다. 그리고 발목뼈의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장딴지사이에 걸친 부분을 대나무나 맥주병 위에 올린다. 그리고 무릎을 편 상태로 발을 50센티미터 정도 올려서 대나무 위로 힘없이 떨어뜨린다. 오른발을 25회 실시한 다음 왼발을 25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횟수는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증가시켜야 한다. 이 25회란 것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회씩 또는 50회씩 실시하여도 된다.

단, 이 상하 운동은 복근과 대퇴근이 피로하기 때문에 한쪽 발씩 교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왼발 오른 발을 교대로 실시하되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 발을 5회 또는 10회 이상의 횟수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총 운동 횟수는 양발을 합계로 500~600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게 100~300회 정도쯤 실시하여도 운동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익숙해짐에 따라 천천히 횟수를 늘려 가는 것이 좋다. 힘을 빼고 발을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요령이다. 1일에 2~3회, 아침 공복과 취침 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에 발목이 아프면 수건 등을 대나무에 덮어서 하여도 무방하다.

간단한 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발에 힘을 뺀 상태로 떨어뜨려야 하나 힘을 주어 억지로 부딪치면 골절이 될 수가 있다. 발에 부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걷다면서 실시하면 차차 부종이 없어지고 3일 정도 계속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발목만이 아니고 손목의 상하운동도 실시할 수 있다.

몸의 상반신에 나쁜 증상이 있으면 손목의 상하운동도 효과적이다.

방법은 발목상하운동과 같다.

발목펌프운동은 발목이 상하로 움직임에 따라 장딴지의 근육이 펴지고, 오므라들게 되어 펌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사람은 원래 병을 고치는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발목펌프운동이다. 발목펌프운동은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운동이다.

이 운동을 계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선 변비가 개선되고 편두통이 없어져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한다.

무릎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기침도 적어지고 감기에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다. 심장발작이나 통풍에 의한 통증에도 해방되었다. 시력이 회복되고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으며 머리카락도 검게 되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완전히 나았다.

척추 디스크에 의한 요통과 다리의 신경마비도 고쳐졌다.

소변이 잘 나오고 하복부의 불쾌한 통증과 전립선 비대증도 개선되었다.

치질이 나았고 불면증에도 벗어났다.

허리통증이 줄고 뺨 허리도 나았다고들 한다.

이렇게 전신이 건강해지면 체질이 개선되어 불편한 곳이 회복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편리한 생활을 얻는 반면 운동부족에 따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신체에 부조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여성에게서 장딴지 정맥의 혈관이 굵어지는 것과 같이 붓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하체정맥류라고 하며 정맥류가 생기면 다리가 붓고 쉽게 피로해지며 저리는 것과

같은 통증이 오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2~3개월의 발목펌프운동으로 치유 될 수 있다.

비만인 사람의 경우는 발목펌프운동을 함으로써 다리가 매우 편하게 되고 아무 거부감이 없어져 몸이 좀 긴장 되지만 배를 만지면 줄어드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2개월 정도 하면 바지의 벨트 구멍이 2개는 줄어든다. 이렇게 비만이 없어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혈압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장시간 서서 일을 계속하면 정맥류의 혈액이 아래쪽에 쌓이는 경향이 강해져 커브형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다리를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발목펌프운동이 최고며 다리와 얼굴의 피부도 좋아진다고 한다.

사람은 하루중 2/3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 이하의 대장, 소장, 위, 간장, 비장, 신장 등 모든 내장이 전부 압박당해서 꿈쩍 못 하며 다리까지도 필요없는 것처럼 된다. 위쪽에서는 폐가 손상되고 심장은 여전히 바쁘게 작용하며 두뇌는 혼란 상태가 된다. 그러한 세포에는 혈액의 공급과 공기나 영양물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오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잘 쓰러진다.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힘을 잃고 소화기관이 손상되고 호흡기 계통도 나빠지고 혈액순환도 이상이 생긴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발목펌프운동이나 손목펌프운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혈액순환 자동발목펌프기가 개발되어 선전하고 있다. 깨끗한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면 원칙적으로 질병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동의 방법이나 자동 발목펌프기를 권장 드린다.

참고문헌: 발목펌프건강법 (니시만지로 지음)

(제공: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회사법 (1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7.20. 이사회(Direksi)

주식회사법 제1조 5항은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설립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 정관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의 기구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란 정관에 나와 있는 업종의 사업 경영을 뜻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회사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경영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경영 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의가 승인을 해주면 이사회는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영 결과 보고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이사회가 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7.20.1.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1인 혹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1인은 대표이사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이사가 된다. 대표이사는 Direktur Utama 혹은 Presiden Direktur로 호칭하며 이사는 Direktur로 호칭한다. 1인 이사회는 Direktur는 사장을 뜻한다. 제도상으로 공동대표이사는 불허하나 부대표이사 혹은 부사장

(Wakil Direktur Utama atau Wakil Presiden Direktur)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법상 외국인 임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서에 해당 외국인 임직원의 Job Title이 명시되어 있어서 수행하는 업무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대표이사만 인사노무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직원 1명을 부대표이사(부사장)로 선출하는 경우에 외국인 직원 1명이 대표이사처럼 많은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는 전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며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Joint Venture Agreement에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총원 몇 명에 외국 주주 측이 몇 명 내국 주주 측이 몇 명 대표이사는 어느 측이 맡는다고 자세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소주주가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업종이 많은 사람의 돈을 핸들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혹은 상장 회사의 이사회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7.20.2. 이사회원의 업무 분장

이사회원의 업무분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는 노동법상 고용허가서에 담당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이사회원의 임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7.20.3. 이사회원으로서 피선 자격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성인)는 이사회원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 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파산에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자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격이 없다. 특정 분야 업종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피선거격은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법규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20.4. 이사회원의 선임 및 해임

7.20.4.1. 최초 이사회원은 회사의 설립인이 선임한다.

7.20.4.1. 이사회원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회원일지라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7.20.4.3.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감사회가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해임이 확정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즉시 복권한다. 감사회의 이사회원 임시 해임 시효는 임시 해임 일로부터 최장 30일이다.

7.20.4.4.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을 임기를 정해 선임하며 계속 재 선임할 수 있다.

7.20.4.5.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 발효 일자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발효 일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혹은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폐회 순간부터 발효한다.

7.20.4.6.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登記해야 한다.

7.20.5. 이사회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불 결정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결정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회 결의서로 이사회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한다.



7.20.6. 이사회 의 직무

7.20.6.1. 회사가 법인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7.20.6.2. 회사의 장관 개정 사항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혹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일반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고 공정증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보하여 승인서 혹은 통보필 확인서를 득하여야 한다.

7.20.6.3. 매년 새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감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7.20.6.4. 매년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받아드리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영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책임이 회사로 옮겨지나 이사회에서 제출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로 경영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진출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 총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법리상으로는 대표이사 이하 전체 이사회원이 경영결과에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업 혹은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에 경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7.20.6.5. 이사회는 주주명단,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연간 경영결과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 및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열람을 허용하고 주주총회 회의록과 연간 경영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7.20.

7.20.6.6. 이사회원은 본인 혹은 이사회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회사의 특별 장부에 기재해놔야 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사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20.6.7. 한 회계연도 기간 중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발행된 주식의 최소 3/4을 보유하고 있는 단수 혹은 복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가결한 주주총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7.20.6.8.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 직무 뿐만 아니라 제반 법규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학생기자 JIS 한영진)

해마다 최대 5번씩 IASAS/아리아사스 (Inter-scholasti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chools) 라는 대회가 총 6개의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매년 국제학교들 사이에서 시행되는 큰 행사중에 하나인데, 예술 분야나 스포츠로 열리는 대회이다. 예술 분야는 음악, 미술, 춤 그리고 드라마와 같은 것들이 있고 스포츠는 수 없이 많다.

6개의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이유는 6개의 다른 국제학교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6개의 국제학교들은 ISB (방콕), ISM (마닐라), ISKL (쿠알라룸푸르), TAS (타이페이), SAS (싱가포르)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JIS이다. 이 대회가 6개의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큰 기회고 학생들의 학교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이유는 대학을 갈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IASAS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크게 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회가 열리게 되는 분야들 중 하나에 뛰어나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 대회가 열리는 어떤 한 분야의 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데, 이 도전을 하는 학생 수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 경쟁률이 강하다. 특히 스포츠 분야인 축구는 도전하는 학생들이 보통 80명쯤 되고 선발되는 학생은 20명이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팀에 선발이 되어 학교 대표로 다른 학교와 경쟁하는 것이기에 대학들은 이를 그냥 학교 활동으로 보지 않고 학생의 개인 능력으로 본다. 이만큼 대학들이 크게 사기에 학생들이 학교 대표로 발탁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대회가 열리는 곳은 열릴 때 마다 바뀐다. 공정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말고도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열릴 때 마다 바뀌는 것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홈에서 열리는 것은 학생의 능

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들끼리 서로 “홈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강박 정신력을 가지게 하여 실제로 경쟁을 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열리는 곳에서는 열리는 곳의 학생들이 홈에서 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나라 올림픽 지원을 하듯이 지원을 한다.

스포츠로 열리는 대회가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다. 참여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관중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크게 쏠린다.

시즌에 대해 설명 하자면 1시즌에는 축구, 크로스 컨트리, 배구가 있고 2시즌에는 농구, 럭비, 테니스, 수영이 있고 3시즌에는 배드민턴, 골프, 야구 그리고 육상이 있다. 학생들은 한 시즌에 단 하나의 스포츠에만 도전 할 수 있다. 이는 한 시즌의 스포츠들의 아리아사스 대회가 다 한 학교와 같은 시기에 열리기 때문이다. 또 한 스포츠의 학교 팀에 발탁이 되면 연습하는 양이 많아 두개의 스포츠에 참여 할 수 없고 시간도 없다. 하지만 1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즌에 참여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총 3번의 아리아사스에 참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이 다른 스포츠들에 발탁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통은 3번 다 참여하지 않는다. 힘들기도 하고 학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3번 다 참여한다면 운동 선수나 다름이 없다.

이번에도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축구 아리아사스 대회가 열렸다. 축구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렸고 이번 남자 축구 아리아사스의 챔피언은 SAS(싱가포르)학교가 가져갔다. 자카르타 국제학교인 JIS는 아쉽게 2등으로 마무리 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ISB(방콕)이 우승을 했다. 아리아사스는 매년 열릴 것이고 학생들은 끊임 없이 도전 할 것이다.

솔라웨시섬(팔루일대) 재난구호 성금모금

기준 : 2018.10.1 ~ 10.29

번호	날짜	성명 / 회사명	금액	
			USD	(Rp.)
1	01-10-18	강덕재 (Kang Duck Jai) / PT. LSP		50,000,000
2	04-10-18	김주형 (Kim Joo Hyeong)		2,000,000
3	04-10-18	고경아 (Go Gyoung Ah)		300,000
4	04-10-18	이보화 (Lee Bo Hwa)		500,000
5	05-10-18	장효지 (Hyo Ji Jang)		500,000
6	05-10-18	안환혁 (Ahn Hwan Hyuk)		500,000
7	05-10-18	PT. Keumkwang Semyu Indonesia		2,000,000
8	05-10-18	PT. Cipta Orion Metal		200,000,000
9	05-10-18	윤만권 (Man Kwon Yoon)		1,000,000
10	05-10-18	김호권 (Kim Ho Kwon) / PT. SUNSHINET TECHNICA		10,000,000
11	05-10-18	박충달 (Park Choong Dal)		200,000
12	05-10-18	길병완 (Byong Wan Kil)		100,000,000
13	05-10-18	PT. Feel Buy		5,000,000
14	05-10-18	조영완 (Cho Young Wan)		500,000
15	05-10-18	전가은 (Jeon Ga Eun)		500,000
16	05-10-18	전서호 (Jeon Seo Ho)		500,000
17	05-10-18	김영희 (Young Hee Kim)		100,000
18	05-10-18	박근혜 (Geun Hye Park)		1,000,000
19	05-10-18	박우영 (Park Woo Young)		300,000
20	05-10-18	신동수 (Dong Soo Shin)		30,000,000
21	05-10-18	No Name		1,000,000
22	05-10-18	No Name		1,000,000
23	08-10-18	신기엽 (Shin Kee Yup)		20,000,000
24	08-10-18	양윤정 (Yang Yun Jung)		1,000,000
25	08-10-18	스마랑 한인회 (Korea Asosiasi Semarang)		50,000,000
26	08-10-18	김학순 (Kim Hak Soon)		300,000
27	09-10-18	PT. Zimmoah Marine		10,000,000
28	09-10-18	Venus Spa Karawaci		3,000,000
29	09-10-18	이종근 (Lee Jong Geun) /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
30	09-10-18	No Name		665,000
31	10-10-18	Tangerang Hangari		3,600,000
32	10-10-18	송민주 (Song Min Ju)		500,000
33	10-10-18	송판원 (Song Pan Won)		10,000,000
34	10-10-18	조민기 (Cho Min Ki)		500,000
35	10-10-18	PT. Dayup Indonesia		10,000,000
36	10-10-18	유병선 (Byeong Sun You)		3,000,000
37	10-10-18	대구광역시	10,000	

38	12-10-18	PT. Younglim		30,000,000
39	12-10-18	김예형 (Kim Ye Hyung)		500,000
40	12-10-18	김영애 (Kim Young Ae)		1,000,000
41	12-10-18	PT. Sadua Indo		3,000,000
42	15-10-18	조인제 (Cho In Je) / (주)케이알선박엔지니어링		10,000,000
43	18-10-18	엄정호 (Aum Jung Hoo) / PT. ING International		40,000,000
44	19-10-18	2018 APG 대한민국선수단	4,000	
45	22-10-18	수라바야 한인회 (Korea Asosiasi Surabaya)		40,000,000
		이봉운		500,000
		PT. CORT		10,000,000
		김덕수		1,000,000
		이상재		1,000,000
		김수용		10,000,000
		권익수, 권규을, 권가음		1,000,000
		김순주		300,000
		박종복		300,000
		이상조		1,500,000
		박인수		1,000,000
		정민교		1,000,000
		황석현		5,000,000
		최성갑		2,000,000
		김영호		1,000,000
		박은영, 유의준		1,000,000
		배춘식 / PT. MAPA		3,400,000
46	22-10-18	족자 한인회 (Korea Asosiasi Yogya)		170,000,000
		배석기		30,000,000
		박병엽 / PT. Oriental Seed Indonesia		30,000,000
		김영율 / PT. Sung Chang Indonesia		30,000,000
		김동선 / PT. Eagle Glove Indonesia		30,000,000
		이종철 / PT. Hung A Indonesia		10,000,000
		박현두 / PT. H J Glove Indonesia		10,000,000
		조용재 / Bornga Resto Yogyakarta & Chimac		20,000,000
		주장원 / PT. Alam Green Wood		10,000,000
47	23-10-18	정민수 (Jeong Min Soo)		1,000,000
48	26-10-18	PT. Jin Young		20,000,000
49	29-10-18	우리컨설팅 (Woori Consulting)		20,000,000
50	30-10-18	장애인 아시안게임 코리아하우스		7,000,000
총 모금액			14,000	871,965,000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2018 추석 모임 및 골프대회를 마치고

감사 인사의 글

중부자바(스마랑) 한인동포 여러분,

한인 동포 사회에서
“참여와 도움은 배려이며 헌신이고 그리고 미덕” 입니다.

어제 9월 23일 2018 추석 모임과 골프대회에
참여하여 주신 300여 한인동포분들과
많은 도움과 찬조를 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은
2018 추석행사가 풍성하고 즐겁고
그리고 건강하게 치러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행사 내내 한층 성숙하고
멋진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은
이 지역 한인동포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와 행사에 다소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양해하고 살피 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멋진 한인사회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와 배려 그리고 도움을 당부 드립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리고 애국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운영위원 일동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23

인도네시아 ..
년 신뢰와 200명 전문 직원이 지원합니다
인재채용(헤드헌터), 아웃소싱, 회사설립, 인사컨설팅 외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OPEN HOUSE

West Campus | Fri, 8 Feb 2018
South Campus | Sat, 9 Feb 2018

www.ichthusschool.com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ur Campuse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f Ichthus Schools
▶ Ichthus School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석)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	----------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김상태, 김혜정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L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온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http://www.ksai.or.kr E-Mail: sports-ind@naver.com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국장	최석일	0811-888-9609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패러글라이딩협회장	이동진	0811-393-3302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2018 임원잔소금 납부명단

기준: 2018.9.27 ~ 10.29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99	이승원 한인회 부회장	PT. NEO HYOLIM	72,000,000		
100	홍춘식 한인회 부회장	PT.SENGDAM JAYA ABADI	67,500,000		
101	송광중 한인회 자문위원	PT.MOTONIC INDOPART	14,500,000		
102	김종희 한인회 이사	PT.YOUNG JIN INDONESIA		2,000	2017~2018
	*무기명 납부		13,800,000		3월 15일, 우리은행
총 금액			2,944,802,000	50,000	

2018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105	김동일	300,000
106	이승원	300,000
107	전민식	900,000
108	최병우	900,000
109	송창근	900,000



우리도 함께 알래요~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학생들이 모은 술라웨시 빨루 재난 구호 성금 RP28,238,300 를 현지 학교에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p.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안인의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8.1.23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 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람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펄프업,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